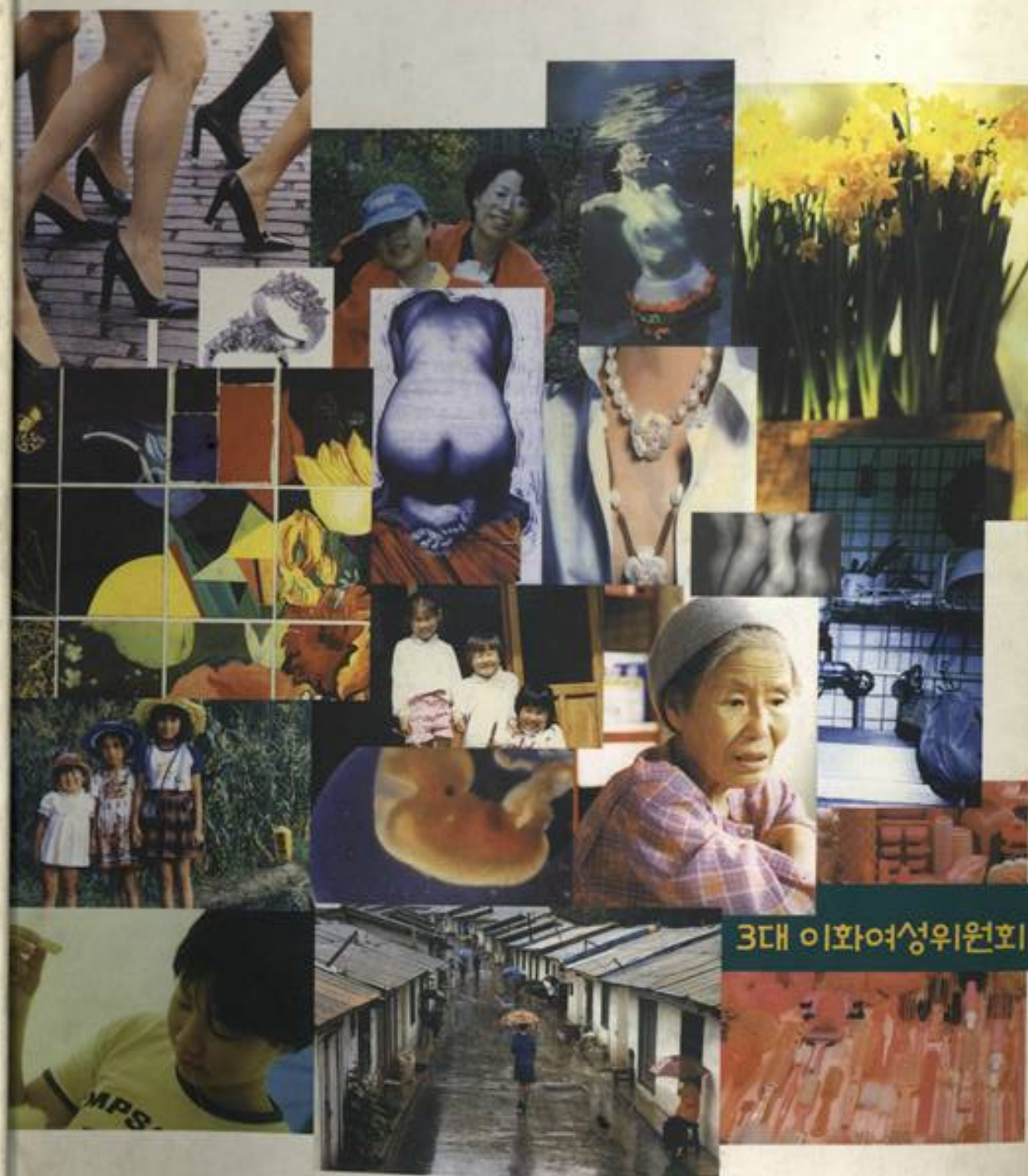


3차성징

1998 No. 02



3차 성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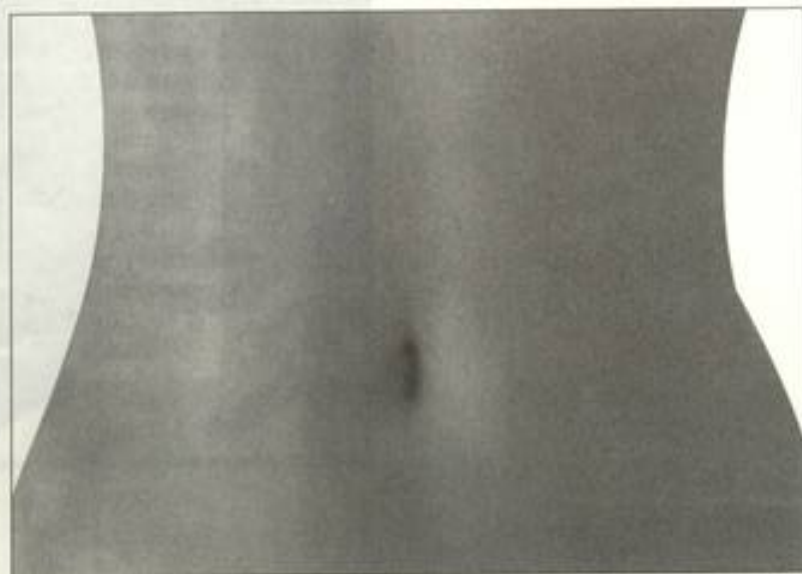
1998 No. 02



3대 이화여성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위원회 위원장

가로형인가, 세로형인가?



“내 배꼽은 어떤 모양일까?”

배꼽을 한번 거울 앞에서 자세히 본 적이 있으세요?
 제 아무리 세로형의 예쁜 배꼽이라도 허리와 배에 체지방이 많이
 쌓이면 두꺼운 주름과 함께 가로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체지방!
 여자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원인이 바로 이 체지방입니다.

여자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광고입니다!!



두 번째 3차성징을
발간하며...

두 번째 3차성징을 발간하며...

95년에 이화에 입학한 우리들

1. 작년 이 맘때쯤이었다. 이화라는 공간 안에서 이화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 있
 는 지형을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서 체득되는 경험에 기반하여 여성주의 담론을 생성
 해 갈 실천력을 지닌 여성주의 매체지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아래 위원들의 사비를 털어가며
 <3차성징>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 <3차성징>이 2호를 맞게 되었다. 힘들게 1호를 내었다고 해서 2호의 작업이 만만
 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실천력을 담
 보하는 여성주의 매체지'라는 도전장을 던진 우리들에게 <3차성징> 2호는 단순히 1호의 연
 속이 아니라 새로운 '1호' 이어야 했다. 모든 것이 관성화되기 쉬운 사회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이화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그저 '2호'를 위해 관성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 기간의 활동을 다시 되짚어 보았을 때
 놓쳐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만족할 만한 수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판단은 이것을 읽는 분들에 의해 내려질 것이다.

2. 지난 1년동안 정신없이 움직이고 부대껴야 했던 여성위원회 사람들.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그녀들의 숨소리들이 느껴지는 듯 하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매번 당혹스
 러운 일상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 몸 속에 음침하게 숨어있는, 배어버린 기존의 시
 선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고 행동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그저 선연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외침이 아니라 그 외침을 모아내고 이어낼 수 있는 행동을 각오한다는 것
 은 우리 안에 너무나 능청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질서를 매번 호트러뜨리고 뒤집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보다 많은 이화인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는
 작업이었다. 작년 창간호를 내며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하는 전문적 페미니즘 담론의 생성
 과 꾸준한 운동의 역할의 담보'라는 총기조를 자신있게 약속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
 금 우리는 어느때보다 더 이화에서의 여성주의 담론이라는 것이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적인 일상과 그것에 저항하는 우리들을 몸짓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
 고 다소 거칠고 어설픈 우리들의 숨소리가, 몸짓이 바로 <3차 성징>이 아닌가 싶다. ■

3차성징

No. 02



기획글 두번째 3차 성징을 발간하며 3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밤바닥에 내팽거려진 여성들-행당동 재개발지구 성폭력 사건 6

기지촌 현장활동 이제 같은 여성으로 만나기 위해 10

온라인 성폭력 단지 그대가 '여자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8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번만 뜨고 갈게요!-98년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24

끝나지 않은 역사, 일본군 성노예 28

이화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 여성공간 OPEN! 32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 3회 페미니즘 문화제 36

여성노동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짓밟히고 무시되는 여성 노동권! 38

예비취업 여대생 캠프 46

성폭력 학칙 이화인의 권리찾기-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하며 49

98여성연대 한판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54

일상에 시비걸기

여성의 몸=예술? 감상물-이자벨두드사진사건 58

빨, 이대 60

내몸에 손대지마-지하철 성추행-방송 개정을 요구하며 62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 폭력 용인 지대? 64

여성 소모임 전사 / 여성 철학회 / 이화여성학 소모임 69

다시 쓰는 동화 新 심청전 72

총회 기획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 77

기획 하나. 우리의 몸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82

기획 광고 2, 86

우리광고

여성위원회 위원소개 88

여성위원회는! 76

3대 여성위원회 활동일지 17



편집후기 87



발행인

박갑희(의직 95)

편집위원

최소현실(교공 96)

문홍보미(사회 97)

이선영(법학 97)

서인숙(정외 97)

발행일

1998년 9월

펴낸곳

이화여성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360-3548(이화여성위원회)

디자인

엑스사단 TEL 338-9668

3차성징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 하나 하나의 다양한 입지와 환경들 속에서도 '여성'이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면 반드시 있었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여성 억압의 경험들을 생성시켰으며, 이것을 '3차성징'이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당파득에 내/팽/겨/쳐/진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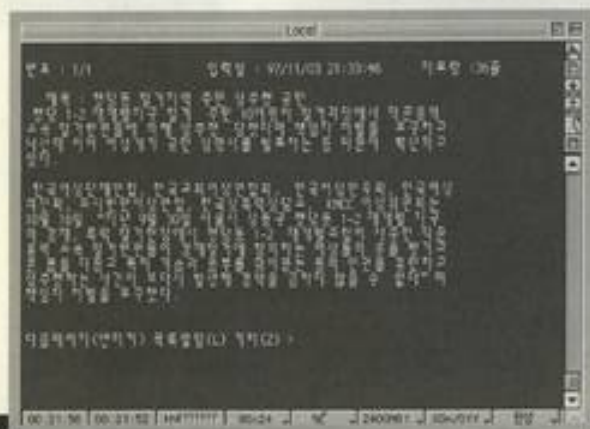


임 00(48, 여) : 사무실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젖가슴을 양손으로 딱 쥐고 “이 년이 방패막이야”며 끌고 다녔다. 팔을 뒤로 꺾었는데, 내가 김씨가 담하는 것을 보고 ‘사람 죽는다’고 소리치자 장갑 낀 손으로 입을 막 쥐어뜯었다.

윤 00(43, 여) : 한 용역반원이 떠밀어 벽에 가 부딪쳐 잠시 기절했다. 그 뒤 음부를 얼마나 잡아뜯던지 너무 아팠고, 또 너무 비참했다.

1997년 9월 30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지구에서 행당동 1-2 재개발 조합이 사주한 적준 용역 소속 철거반원들이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10여명의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비호아래 여성들은 차마 입을 담을 수 없는 성적 폭언과 함께 젖이 물리고 가슴과 음부를 쥐어 뜯기는 등의 가혹한 성폭력을 당했던 것이다.

행당동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여성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거대 폭력으로 인식되는 계급 모순,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가리워 여성의 문제로서 독자적으로 문제제기 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행당동 사건의 피해



여성들이 도시빈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또 다른 억압받는 집단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행당동 사건에서 우리는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방식은 다르게 구조화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녀들을 통제하기에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철거 강대들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성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신없는 철거의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때로는 자신의 페니스를 내보이며 여성을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성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위협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구조지어지는 특수한 폭력의 문제인 것이다.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폭력,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기에 철거지역의 강제철거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얻어맞는 폭력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96년 전경에 의한 한총련 여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무수한 파업 현장에서 있어왔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폭력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혀지는 사건들이다. 공권력에 의해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이 어떤 공간에서건 끊임없이 성적인 대상으로 읽히는 존재, 그리고 성에 의한 수치심을 느끼게하여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은 결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성폭력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통제 가능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폭력,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기에 철거지역의 강제철거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과 함께 ‘성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며 통제되어야 할 존재라고 인식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게 된다.

그동안 무수히 자행되었던 사건이면서도 계급 모순, 주거권 침탈, 강제 첼거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묻혀갔던 강제 첼거지역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이고 독자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빈민 여성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공동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위한 준비들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무수히 자행되었던
사건이면서도 계급 모순,
주거권 침탈, 강제 첼거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묻혀갔던
강제 첼거지역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이고 독자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다르게 구조화 되어지는 폭력적 여성에게 성폭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공동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여성위원회는 공동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11월 12일 '행당동 강제첼거 과정에서의 성추행 근절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촉구 및 서명대회'를 함께 하였다. 또한 학내에서 행당동 지구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여학생 결의대회와 이 성폭력 사건의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 그리고 행당동 첼거지역 주민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는 등 도시빈민여성연합과의 연대 속에서 해결 지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성추행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가 되어 피해자 여성들은 일체의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보상들에서 소외된 채, 또 한번 상처를 받는 결과가 되었

다. 피해자 여성들의 어려운 증언, 이화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해결과 피해자 여성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서명이 있었음에도 재판의 결과가 '무혐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제도에서 여성들의 경험들이 얼마나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피해 여성들은 폭력을 당해야 했다. 사건 정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의 형사들의 태도, 즉 '아줌마가 이따서 그랬겠지' 등의 말을 내뱉는 등의 태도들에 의해서이다. 여성들에게 있어 성폭력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려 상세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잊어버리고 싶은 비참한 상황들을 떠올리고 언어화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폭력 사건들에 있어 피해 여성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존재, '성'적으로 더럽힘을 당한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사건을 피해자의 원인제공으로 돌리려는 형사들의 여성의 경험이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중심적인 태도들에 의해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당동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여성들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남성적인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끊임없이 자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제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행당동 재개발지구 성폭력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독자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적인 담론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것의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행당동 성폭력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묻혀져 왔던, 부당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밝혀내어 문제제기하는 것, 그리하여 여성들의 아픈 경험들이 담론화되어 새로운 담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이화여성위원회는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





이제, 같은 여성으로 만나기 위해

'슈즈 \$10, 톱타임 \$10, 숏타임 \$5, 가방 \$5!!'

한국의 물가가 비싸고 여자들의 몸값이 비싸다고 미군부대 쪽에서 부린 유인물의 제목이었다. 우리는 한성울에 모여 시위를 준비했다.

'죽여!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들!'

'구두값하고 사람값이 같나? 우리가 신발만 못하냐?'

상가 아저씨들이 가져다 준 막걸리통은 이리저리 텅굴었다. 소주병을 깨서 부대철조망으로 던지고 시위는 절정에 올랐다. K-55 미 공군 부대의 정문은 굳게 잠기고 세 대의 소방차에서 뿜어대는 세찬 물줄기는 마스크타의 검정물과 땀과 눈물과 침에 섞여 얼굴에 튀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분노가 게거품 같은 침과 땀 섞여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요정을 하는 친아버지에게 열여섯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나오다가 잡혀 다시 당하고, 임신까지 해서 중절수술을 하고 결국 작궁암 3기로 죽어가야 했던 박혜연의 사연이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가 여수로 장사하려고 집을 비운 사이 삼산면 면사무소에서 심부름하는 딱따구리 먼 친척오빠에게 국민학교 4학년 때 두 번이나 자궁을 짓밟았던 나의 설움이 미국놈들을 향해 악을 토하고 고맙고맙 소리를 지른다. 분노하고 연통하고 서러워 소리지른다. 결국 미군 부대 사령관이 나와 사과를 하고 관광협회 클럽주인들이 나와서 달걀자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제, 같은 여성으로 만나기 위해

'빛진 죄인들이기에 그들 앞에서는 죽도 못 쓸' 수 밖에. 아하울 때 그들 주머니에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방세, 옷값, 화장품값, 그리고 병원비도 없어 애도 때지 못하고 앓이 없는 자식을 낳아야 하는 현실은 무섭기 때문이다.

그때도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지고, 이불을 깔 때면 달은 다시 떠오르고, 네온사인온 각양의 불빛을 쬔다.

'언제 시위가 있었나?'

무감각으로 다시 미군과 어울린다.

- 김연자 씨의 수기 중에서

지 나가다 길을 잘못 들어 붉은 불빛아래 여성들이 줄줄이 진열되어 있는 곳을 통과해 갈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아니면 가없다 여기시는지 아니면 왜 저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들을 비난하며 경멸하며 지나가시는지. 당신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그 불빛아래 진열된 여성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물론 당신은 고등교육을 받는 인텔리이고 한 번도 자신의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 적 없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섹스를 나눈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비껴 보세요. 그 길목을 지나다니는 남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요. 당신도 그저 쾌락을 줄 수 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남성들은 강간을 하고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사고 있겠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물, 인격이 지워진 여성의 몸입니다. 이리도 쉽게 여성이 타인을 위한 성적 도구로 사용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비인간화가 이토록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도 역시 성애화되어 임하고 있는데, 한 여성의 몸이 팔리고 있을 때,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의 몸이 팔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한다면, 당신은 비약이라고 말씀하실건가요.

여성의 비인간화가
이토록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의 몸이 팔리고 있
을 때,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의
몸이 팔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매춘 현장에 <묵인> 여성들

매매춘은 여성을 비인간화된 物로 만들고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데서 모든 여성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러나 매매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매춘 여성들이다. 매매춘의 성산업 구조는 매춘 여성들이 돈을 모을 수 없

이제, 같은 여성으로 민위해 이제, 같은 여성과 나기 위해

매매춘의 성산업 구조는
매춘 여성들이
돈을 모을 수 없게 하고
매매춘현장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 경제적 착취의 수단은
주로 '빚'이다.

옷값, 밥값 등을 펌부(포주)에게 빌려줄 수 밖에 없다. 그밖에 목돈이 당장 필요해서 미리 포주에게 돈을 빌려받은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에도 포주가 여성을 산 돈이 그 여성이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포주에게 '몸인' 상태이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것이 아니다. 매일 일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저래 생활비로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빚은 계속 늘어만 간다. 그 빚을 다 못 갚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그 곳에서는 팔려 온 가격이 다시 빚으로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만약 한 여성이 매매춘 현장에서 도망을 치면 그녀가 졌던 빚은 서로 '연대보증'을 했던 또다른 여성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업주는 찾는 데 든 비용으로 하루 10만원 이상의 돈으로 빚을 늘린다.

빚문제를 제하더라도 매매춘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기존의 사회 관계에서 차단되기에 전업을 쉽게 꿈꿀 수 없다. 여성들 스스로도 매매춘의 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

게 하고 매매춘 현장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 경제적 착취의 수단은 주로 '빚'이다. 여성들은 돈 한푼 없이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에 적응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아볼 것 같은 불안감으로 시장이나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매매춘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강간의 경험 등 남성중심적 사회의 폭력으로 내적인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많다. 그러한 이유들로 '있다보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속편하다'는 생각과 함께 매매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고통들

기지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지촌 여성들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최하급에 속한다. 많은 경우 매매춘 여성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팔려다니다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곳이 기지촌이다. 미군에게 성을 파는 관계로 같은 매춘 여성들에게도 싸구려 양갈 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더욱 좋지 않다. 특정한 부대를 둘러싸고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기에 미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행을 당해도 주위 동료들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다. 자신이 불만을 이야기한 사실이 부대 안에 퍼지면 미군들이 그녀를 상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군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다. 그 미군이 앙심을 품고 부대 안에 악소문을 퍼트리면 영업에 바로 차질이 생긴다. (수시로 미군 의무관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성병검진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덕분에 미군들은 부대에서 **홀의 검진번호 204가 함



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춤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매춘 여성들이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군에게 속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한 경우에도 한미 행정협정조약에 따라 가해자는 미국법정에서 낮은 수위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곳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소원은 좋은 미군을 만나 결혼하고 빚도 갚아 새 삶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하던 군인들은 대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혼자서만 한국을 떠난다. 버림받은 여성들은 결혼을 믿고 지우지 않았던 혼혈아와 함께 한층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국제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경우에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주한미군들은 대개 본국에서 빈민 생활을 하던, 갈 곳이 없어 군대에 자원한 자들이기에 미국으로 건너가도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도 계속되는 구타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되거나 실종이 난 미군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아는 이 하나 없이 버려진 미국에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매매춘에 뛰어드는 일 뿐이다. 기지촌 국제결혼 실패자의 75%가 다시 현지의 매매춘 공간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기지촌에서 나이가 들게 될 수록 자신을 구원해 줄 미군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된다. 그저 돈을 모아 조그만 가게같은 것을 꾸리



영화 <창> 중에서

는 것 정도가 기지촌 여성들의 바램인데, 앞서 말한대로 매매춘산업의 구조자체가 착취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그 속에서 돈을 모으고 빚을 갚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날 그날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들은 어렵게 돈을 모으기보다 스트레스 해소의 차원에서 이것저것 작은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노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나이가 들어 건강마저 좋지 않은 상태에서

1) 기지촌의 여성들은 모두 성병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매매춘이 불법인 한국에서 기지촌의 여성들에게는 성병검진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매매춘 정책의 이중성(겉으로는 금지, 사실상은 장려)을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미군들에게는 성병검진을 하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성병검진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병이 발병했을 경우 다른 보건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미군들에게 이 여성들은 성병의 염려가 없으니 걱정할 그 사용하라는 말에 다름아닌 것이며 매춘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책인 것이다.

2) 사실 매춘 여성이 한국인에게 폭행/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신고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상 매춘은 불법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범죄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법에 호소할 수 없다. 매매춘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면서 윤리적으로는 장려되는 이중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매춘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도 갈 곳도 모아둔 돈도 없어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어두운 골목에서 술에 취한 미군을 상대하거나, 거리의 미군을 불러 아가씨들과 중개해주는 허빠리 생활을 하게 된다. 늙어서까지 기지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지촌의 특수한 문제로 어린이의 문제가 있다. 기지촌은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어 그것으로 마을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러므로 기지촌 마을 자체가 클럽과 기지촌 여성들,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점들로 이루어진, 주민 대부분

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띄게 된다. 이러한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퇴폐향락적인 문화와 군사 문화에 접할 수밖에 없다. 기지촌 여성을 어머니로 둔 혼혈

고 학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 내성적이 되고 집 밖에서 떠돌게 된다.

양키고춤=기지촌 여성들의 해방???

그렇다면 이러한 기지촌의 문제들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필리핀의 수빅 만 기지이전은 기지 이전의 본보기로 많이 인용되는데, 현재 수빅 만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사창가에서 일본과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생관광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문산 용주골의 경우에도 현재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기지촌도 사라졌으나 용주골의 여성들은 대부분 동두천의 기지촌으로 이동되었고, 지금의 용주골은 천호동, 청량리의 서울 매매춘 단속 지역을 피해 새로운 집창가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 즉, 기지촌 여성이나 혼혈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엔 미군이 아닌 내국인에게 몸을 파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오히려 새로운 사창가로 자리잡게 되기까지 당분간 수입이 끊어지기에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일부 시선처럼 기지촌 문제를 민족문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기지촌의 문제나 초점은 종종 '외세에 짓밟힌 순결한 우리 누이'로 집중된다.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의 몸을 자기만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함께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외세의 짓밟힌 우리 동포'에 집중하는 그 시선은, 휴가 나온 군인들이 청량리로 향하는 것은 인정해도 미군들이 한국 여성들을 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시선은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권을 외부에 빼앗긴 남

휴가 나온 군인들이 청량리로 향하는 것은 인정해도 미군들이 한국 여성들을 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시선은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권을 외부에 빼앗긴 남성들의 분노에 다름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어린이의 경우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한국에서 태어난 불운도 함께 한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들에게 배척받고 양갈보의 자식이라는 시선을 어디에서나 심지어 학교 선생님에게까지 받게 되어, 그 결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아주 걸들게 된다. 기지촌 여성들이 아이를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이런 환경일수록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가 교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작은 잘못에도 지나치게 꾸중하

성들의 분노에 다름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여성들이 느끼는 성폭력, 매매춘의 끔찍함이 한국남성들에게 당한다고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지촌 문제에 있어 특화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용인한 대규모 매춘 지역이라는 것-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성적 대상화된 여성의 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의 성욕은 반드시 채워져야하고 따라서 매매춘은 어쩔수 없이 필요하다는 '보편적인' 생각과 맞닿아 있다. 그 보편적인 생각으로 인해 매춘 여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은 남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과 매춘을 하지 않는 여성의 구분은 의미없다. 모든 여성의 몸은 성적대상물로서 얽혀지고 검열되고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지촌 활동은 여성끼리의

'관계맺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지촌 활동은 봉사나 자선이 아닌 연대활동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해방하기 위해 손을 잡는 연대활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인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모순, 계급모순, 민족



영화 <참> 중에서

모순을 체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접근해나가는 것, 기지촌에서 만난 사람들간의 관계와 그들의 느낌을 가슴에 담아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왜 불행한지에 대해, 그들의 불행이 내 것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고 함께 고민하고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기지촌 활동의 의의이다. 기지촌 현장단체의 실무자 언니들은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간관계에 대해 참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지촌 언니들과 함께 자신도 많이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을 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선입관을 깨고 한 아주머니, 언니로 다가오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게 될때 기지촌 활동은 의미를 가진다.

비록 현장으로 가서 기지촌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할 몫은 있다. 편견과 선입관

을 버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며 기지촌 여성들을 바라본다면, '그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라고 쉽게 생각해버리지 않는다면, 그 시각만으로도 기지촌 여성들과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8년이지만 나는 자살하는 기지촌 여성들, 병으로 쓰러지는 기지촌 여성들, 고통받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고통스럽기만 했다. 좌절하는 나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나에게 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바로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중략)

나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믿음으로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내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 나는 기지촌 여성을 돕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기지촌 여성 스스로이며 기지촌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들도 바로 기지촌 여성이라고 믿는다 (중략)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흔들렸지만 그 여성들은 너무나 굳건히 살아왔으며 많은 용기를 보여주었다. 새움터 개원 1년이 되는 요즘, 나는 이 여성들이 나에게 옹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부는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동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내 동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

- 김현선 (새움터 대표)

이제, 같은 여성으로 만나기 위해

새움터와 두레방

기지촌의 현장단체 중 대표적인 두 단체이다. 두레방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산하단체로 1986년 경기도 의정부시에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종교단체의 단순한 시혜나 자선, 교화의 목적을 넘어 기지촌 여성들의 공동체로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상담, 놀이방, 공동 식사라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 기지촌 여성들의 전업사업으로 두레방 빵을 만들고 있다. 새움터는 올해 이화여성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쳐 기지촌 활동을 다녀온 곳으로 1996년 10월 기존 기지촌 지역을 다져온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문을 열었다. 기지촌 여성의 전업사업으로 허브화분, 허브 엽서, 허브 초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밤보육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쳐가는 기지촌 여성들이 청정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마음 붙이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움터와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3대 이화여성위원회 활동일지

- 97 10. 금혼학칙 철폐를 위한 활동 전개
11. 행당 1-2지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
12. 기활학교
- 98 1. 기지촌 현장활동
2. 자체 TS(Team Seminar)
3. '3회 페미니즘문화제' 자원활동단 모집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여성마당' 기획
'3회 페미니즘문화제' 개최
4. '온라인 성폭력사건' 대응 활동 전개
5. 이화 여성학 Web Site개설을 위한 모임 결함
대동제 중 새움터 연대장터
고대생집단 성폭력근절을 위한 활동
성폭력 주간
6.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먹고 살기 대책위원회' 발족
구직등록 운동 선포식 참가
자체 TS
7. 수요시위 참가단 모집 및 교양
326차 수요시위 주관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캠프' 기획 및 참가
8. '여성연대 한 판' 기획 및 참가
9. '3차성징' 2호 발간
3대 이화여성위원회 총회 및
4대 이화여성위원회 발족



단지 그대가 '여자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완의 과제, 온라인 성폭력

나는 지난 3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지난 3월 이화여대 한 학우가 PC통신 도중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이 남학생은 대화 도중 처음 보고 여학생에게 '나 **야, 너랑 나랑 이틀전에 여관에서 잤잖아... 니가 나를 위해 온갖 서비스를 다 했던 것 기억 안나?'라는 등의 언어적인 성폭력을 가했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대화방을 나온 후에도, 계속적으로 메모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 여학생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사의 불량 이용자 센터에 고발하였으나 '하루에도 그런 항의전화 가 한 두통이 아닌데 왜 유독 너만 난리냐'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결국 피해자는 이화여성위원회(여위)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 이에 여위는 통신내에서 가해자가 밝힌 신변사항을 바탕으로 연락을 해보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여위 측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한참 후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려 하였다. 또한 아이디 소지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성명서와 사과문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여위측

의 말에 격분하여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익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계속 가르쳐 달라며 직접 만나겠다는 말만 하였다.

이에 여위는 3월 18일 성명서, 사과문 요구안(3월 25일 도착 요구), 참조법안을 작성하고 진술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학교에 등기로 발송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학교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

3월 26일 여위는 가해자의 학교 교학부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등기를 찾아가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시 가해자에게 등기를 찾아갈 것



미완의 과제, 온라인 성폭력

실제로 통신 자료실이나 대화방에서는 남성사용자들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농담 일색이며 어느덧 그러한 문화가 PC통신의 고유 성격으로 정형화되어가는 실정이다.

을 통보하고 성명서 등을 재발송하였다. 그러나 30일에도 여전히 가해자는 등기를 받아가지 않았다. 결국 여위는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게 증인 앞에서 직접 성명서 등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재요구한 사과문 도착 시한인 4월 6일까지도 가해자는 사과문을 보내지 않았다.

여위는 당초에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실권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공론화하겠다고 전했었다. 기한 내에 사과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이상의 내용을 등기로 통보했다.

그리고 4월 15일,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 관련 글을 실고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인식도와 피해경험, 향후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저녁 돌연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이 왔으며 4월 20일, 가해자의 사과문이 도착했다.

4월 16일, 여위는 유니텔 측에 항의문과 요구안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통신 내의 성폭력 문제에는 당연히 통신사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텔 측은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날 동아일보에 사건이 처음으로 기사화되었다.

이에 4월 17일, 유니텔 측에서 담당자끼리 만날 것을 제안했다. 여위는 유니텔에 대해 1)가해 아이디의 해지 및 재가입 금지 2)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에 대한 제재 강화 3)초보가

입자에 대해 통신 내 성폭력에 대한 대처법과 갈무리하는 법을 메일로 보내줄 것 4) 통신 초기 접속화면에 통신 성폭력과 관련한 경고문을 띄워줄 것을 요구했다.

4월 20일, 가해자의 사과문이 도착하였다. 나우누리 웹진 '퍼즐'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폭력 설문지의 중간결과가 나왔다.

4월 24일, 민우회와 공동 명의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그 후로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대처 등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온라인 성폭력인가

온라인 성폭력은 비단 이번 사건의 배경인 PC통신에서뿐만이 아니라 음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모든 성폭력을 포괄한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에서는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이라니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라는 식의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여기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다시 해보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흔히 강간 등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기 삽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성폭력이란 강간뿐 아니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한 성적,

또는 성에 기초한 원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폭력의 예로는 1) 시각적(결혼질하기, 응시하기) 2) 언어적(외설적 언급, 암시, 농담) 3) 육체적(건드리기, 몸더듬기, 강간 등) 4) 사진 및 낙서 등을 들 수 있다. 가부장적 성문화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게 하여 다수의 남성들에게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성적표현이 용납되게 하고 이를 남성의 특권인 양 여기게 한다. 즉, 성폭력은 현 사회의 성계급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해, 성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현 가부장적 체계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은 그 심각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sexuality)은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로 동일시되어 다른 정황들은 배제되고 오로지 물리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왜곡되고 축소된 성개념은 성을 매우 온밀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지시켜 공식적인 담론에서는 배제시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담론이 가장 활성화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PC통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PC통신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내의 성폭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 보자.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는 비록 사전적 의미대로 '가상의 세계' 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모두 현실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다.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 공간과 밀접히 연결되며 나아가서는 현실공간의 문화와 문제점을 기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과는 달리 개인의 행동을 강



제할만한 뚜렷한 장치가 없다. 즉 이 가상공간은 출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선택의 현실'인 것이며, 그 안에서의 행동은 리얼스페이스(real space: 현실세계)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한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현실의 관념을 보유한 가부장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수적으로도 열세인 여성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현실보다 나올 것 없는 상황에 접해야 했다.

실제로 통신 자료실이나 대화방에서는 남성 사용자들에 의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이용한 성적 농담 일색이며 어느덧 그러한 문화가 PC통신의 고유 성격으로 정형화되어가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정형화는 현 사회의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많은 남성들의 직접적/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은 명확하다.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했듯이 성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체적으로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의 논리를 견지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친밀

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에 왜 여성들이 불쾌감과 수치심, 분노 등을 느끼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의 차이를 둔 교류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그 관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조차도 가해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성희롱과 친밀감의 차이는 '상호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호성은 일방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즉, 일방적인 성적인 표현과 접촉을 행하였을 때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에 관해 친밀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문제시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네티즌의 자정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통신 내의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라인 성폭력같은 사건을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 혹은 '통신예절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극소수'의 일로 치부하려 할 뿐 성(性) 간의 권력구조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극히 드물다. 즉, 개인윤리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클 뿐, 성, 혹은 그 너머의 권력·지배욕으로의 사고확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통신의 가장 큰 특성인 익명성 또한 성폭력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지탄받는 행동을 하면 상당 기간 혹은 그 이상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통신에서는 그/그녀를 나타내는 단일한 표식인 '아이디(ID)'를 바꾸면 보통의 경우 지난 행동에 관한 추궁이 불명확하게 되어 묻히게 된다. 게다가 얼굴이나 신분을 확

인할 방법이 없고, 아이디를 대여받거나 임시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더욱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 특히 PC통신에서의 성폭력은 수없이 자행되어 왔고 피해자들은 마땅한 대책이나 해결을 보장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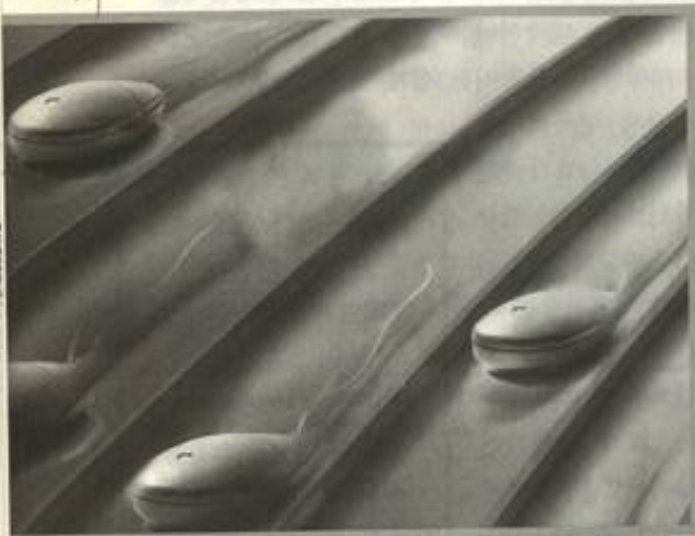
이렇듯 "성폭력이란 신체적인 것"이라서 "통신에서 성폭력이란 없다"는 성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 성폭력이라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성을 기반한 언어적 폭력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전반에 깔린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폄하적인 왜곡된 성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피해자 당사자들은 통신에 접속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통신공간이라는 영역에서 그나마도 소수인 여성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온라인상의
성을 기반한 언어적
폭력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사람들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온라인 성폭력 사건 후, 사건 해결을 진행하

는 한편 온라인 성폭력의 인식도와 실태를 알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니텔을 이용하는 이화여대 학우들과 나우누리의 네



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각각 동시에 진행시켰다.

나우누리 웹진 '퍼즐'을 통해 전(全)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항은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른 문항을 첨가하였다. 총 참여자수는 1368명(남 891, 여477)이었는데 먼저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문항에서 90% 이상의 절대 다수가 '성폭력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여 인식도는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8%, 여성의 경우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6%가 직접 가한 적이 있고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무려 56%가 직접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성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80% 이상이 제재에 동의했고 그 중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성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1%가 남성은 40%가 되었다.

이외에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토론에 참여하였다. 비단 토론방 뿐만 아니라 각 통신 동호회와 게시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우누리에서는 토론방(goacro 2)에서 "통신 성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방장 정희석, ID:whenid)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방에서는 남녀 대결의 양상으로 논점이 빚나가서 애초에 토론방장이 기획했던 '통신 내의 온라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작은 모임 꾸리기'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밖에 각 통신사의 이화여대 통신 동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부 남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학우들 간의 논의는 건전한 편이었다.

수많은 미완의 과제와 몇 안되는 성과

...<전략>...S씨는 결국 수정사과문을 통해 'ID에 대한 권리 소용 책임을 통감하며 이 ID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여성위측은 이 사과문을 바탕으로 유니텔측에 S씨의 ID해지를 요구했고 유니텔측은 S씨에 대한 정식 '추방조치'를 취했다. '익명의 바다'에 또다른 '규칙의 물기둥'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동아일보, 4월 29일)

이번 온라인 성폭력 사건의 해결로 인한 성과는 과거에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어느 정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성폭력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천리안 고객센터의 심현정 과장은 "사기 매매자와 함께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무법자인 성폭력 가해자가 나타날 경우

앞으로 통신공간에서 영구 추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판단기준 마련이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가상공간의 법규는 여전히 현실계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네티즌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소수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기준과 올바른 징계기구가 없다면 여성들은 가상계에서도 '주변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각 통신사에서 하게 되는 일은 극히 초기적이고 미미한 대처법이며 경각심을 주는 데에서 그치는 정도이다. 현재에도 온라인 성폭력은 "하루에도 한두 건이 아니게" 일어나고 있으며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덮어 두고 피해를 받아 안는 여성들도 늘어가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처'란 것은 사태에 대한 완전무결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 상황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은 현 시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대처법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방편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먼저 갈무리하는 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갈무리(현재 화면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폭력을 당하여 통신사 내의 불량이용자 센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하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증거물이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화 내용 갈무리이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대화내용이나 쪽지, 메일 등 가해내용을 모두 갈무리한다.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에게 즉시 멈출 것과 사과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자신을 두려

워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개 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이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후에는 가해자가 보낸 메모나 전자우편은 모두 보관을 하고 그밖의 모든 접촉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한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를 한다면 그동안 확보했던 증거자료를 통신회사의 신고센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 아이디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자유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성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인 비하 등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나 지지하는 여론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

또는 성폭력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법적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

한번만 뜨고 감게요!

98년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1.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4자테이블 결성과 근절노력

고대생집단성폭력이 단순한 치기나 재기가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고민 아래 97년과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총학생회와 4자테이블을 구성하고 98년 이화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나갔다. 1, 2차 4자테이블(1월 16일, 2월 4일)에서는, 양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전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새터)을 중심으로 한 교양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대에서는 신입생 교양자료집에 성폭력의 관점에서 고대생집단난동을 바라보는 글을 실고, 여학생위원회 차원에서 새터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니터하고 사후강제

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이화에서는 전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여성마당에서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3차로 진행된 4자 테이블에서는 대동제를 앞두고 서로의 활동과 사건 재발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다음은 3차 4자 테이블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4자테이블에서 합의된 입장〉

-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은 성폭력이다.
- 4자 테이블은 양교 총학생회, 이화여성위원회, 고대 여학생위원회의 4자로 구성되며 고대생집단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대책을 논의하고 활동을 펼쳐나가는 기구이다.
- 호랑이포졸단(호포단)은 이화대동제에 오지 않는다. 호포단이 이화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성폭력을 막는다는 것은 이화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이다.
- 난동 재발시 고대 총학생회는 이화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재발시 이화의 요구사항〉

- 학칙처벌 : 주동자 제적, 가담자 1학기 정학.
-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사과를 최소한 양



112주년 이화 대동제 우리 손으로 치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었고, 대동제 기간의 이화 앞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우리는 고대 학생처에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사과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 학보에 게재.

-학교시설 파괴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요구.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화는 단독으로 형사고발을 강행한다.

위의 내용을 4자테이블 명의로 양교 학생처에 공문 발송을 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화 대동제 직전에 양교에는 각 학교 내의 담론화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다. 4자테이블의 진행상황 보고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보화되었으며 고대에서는 중운위 명의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서가 자보화되었다.

대동제 삼일 간 여성위원회와 지킴이, 영상이 등의 행사진행요원들은 함께 이화광장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고대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이화대동제 기간 고대내에서 고대생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단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담론화 작업을 가져 나갔다.

2. 한번만 뜨고 감게요!?

112주년 대동제 폐막일의 고대생 난동

1) 폐막일의 난동과 이후 대응

오후 4시 경부터 무리지어 몰려있는 남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엘리제 한판 뜨고 가자', '언제하나', '지킴이가 너무 많아 못 뜨겠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화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주시하였으며 카메라로 그들을 찍기 시작하자 해산되는 무리들도 있었다.

오후 10시 경, 이화광장에서 미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설치된 게시판에 붙여진 고대생집단성폭력에 관한 자보를 보면서 심상찮은 분위기를 풍기는 무리들이 있었다. 여성위원회 1인이 그들의 뒤쪽으로 다가가자 그들은 그 학생에게 '수고하셨습니다'를 연발했고 이어서 주



먹을 흔들어 보이며 'I'll be back'을 연발하면서 정문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화교 입구에서 그들 중에 2인이 '고대'를 외쳤고 이에 여성위원회 1인이 그들을 쫓아가 '고대'를 외친이가 누구냐고 추궁하였으나 그들은 완강히 부인하

면서 정문을 빠져나갔다. 정문을 빠져나간 그들은 원형으로 대열을 형성하였고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고대생들이 물려들기 시작하였다. 인원은 10여명에서 3~40으로 늘었고 곧 이어 한 명이 등을 뜨자 용원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이화광장을 지키고 있던 여성 위원회와 지킴이들이 정문쪽에 배치되어 그들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스크럼을 형성하였다. 이어 고대생들의 난동을 눈살을

남성중심적 사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들만의 공간 '이화'.
우리의 공간을
온전히 지켜 나가기 위해
고대생집단성폭력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지킴이와 여위들은 고대생들의 스크럼 안으로 들어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사진촬영 도중에 그들은 위협하는 몸짓을 하거나 '찍을테면 찍어봐라'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당일 함께 광장을 지키셨던 92, 93학번 선배님들이 스크럼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러한 과정 속에 스크럼에서 끌려나온 주동자는 학교밖인데 무슨 상관이라는 욕지거리와 변명을 해대다가 이



화인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한번만 더 뜨고 갈게요'라는 시비조의 부탁(?)을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이어 1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한두명씩 대열을 이탈하여 전철역 쪽으로 도망치듯 해산되었다.

다음날 여성위원회는 자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이화인들에게 알리고 총학생회와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었고, 대동제 기간의 이화 앞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우리는 고대 학생처에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사과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고대 학생처에는 답변이 없었고 방학이 되면서 학생처에서는 발을 빼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방중에 있었던 4차 4자테이블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확보와 증거자료의 공유를 통해 각 단위별 이월작업을 강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 우리에게 남은 것

물론 학교앞 공간은 물리적으로 이화의 공간은 아니다. 그러나 대동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화의 정문 앞은 상징적으로 이화의 공간이며 행사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화의 통제력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이다. 학교 앞에서

112주년 이화 대동제 우리 손으로 지/켰/다.

난동을 부렸던 40여 명의 고대생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학교 앞이 물리적으로 학교 밖 공간이라는 사실, 즉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었다. 이는 이화광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I'll be back', '고대'를 외치며 정문을 빠져나가 스크럼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볼 때 더 명확해진다. 분명히 112주년 이화대동제 폐막일에 난동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화광장을 배회하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폐막제가 끝날 때까지 이화광장을 지키고 있던 이화인들때문에 등을 들 수 없자 도망치듯 학교 바깥으로 빠져나가 스크럼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스크럼을 형성한 무리들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사진행요원 40여명이 정문으로 배치되는 등 이화의 폐막제 행사는 방해 받아야 했다.

96년 이화가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을 남녀간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라 재규정하고 문제제기를 한 후, 97년도 111주년 이화대동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작업과 대동제 3일 간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대동제 개방이후 처음으로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이 없는 '이화인들의 대동제'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 당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은 고대생집단성폭력이 남성중심적 성

문화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대동제 사수로 문화 자체가 바뀌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112주년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또

폐막일 학교 밖에서의 고대생 난동을 지켜보면 우리는 고대생문제가 아직 끝난 것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이었던 것은 난동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화인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화인들이 '이화'라는 공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을 여성공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러한 변화들이 대동제 삼일간 감시활동을 펼친 여성위원회와 지킴이를 비롯한 행사진행요원들의 활동과 더불어 남성집단의 폭력으로부터 이화를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대생들은 올해도 이화광장에서 들 수 없었고, 학교 앞이라는 공간을 선택하는 또다른 치졸함을 보여줬을 뿐이다. 남성중심적 사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들만의 공간 '이화', 우리의 공간을 온전히 지켜 나가기 위해 고대생집단성폭력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끝나지 않은 역사, 일본군 성노예

요즘들어 일본군 위안부이었던 할머니들의 부음소리가 부쩍 높고 있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고통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현이 돌리는 날까지 그 힘겨운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를 보는 우리의 입장

일본군의 성적 대상을 '중군 위안부'로 호칭한 것은 패전 전의 일본 군부였다. '위안부'라 불리는 여성들의 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발적이 아닌 강요당한 고통이었으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전쟁범죄였다는 사실을 은폐한 명칭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중군 위안부'의 문제를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가 짓밟힌 역사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권력간의 힘의 충돌인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 유린은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해 왔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타민족의 페니스가 닿은 여성은 그 민족이 아니라는 가부장제의 논리 속에서 전쟁 중 타민족 여성에 대한 강간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나치인들은 유대인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하였으며, 보스니아 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즉 여성은 성욕 해소의 도구로 짓밟을 수 있으며 남성의 소유물이기에 적에 대한 보복수단도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일본에 대한 비난과 분노로만 생각하는 남성적 시각에서 벗어나므로써 '성노예'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성적 대상물, 남성에게 쾌락을 주는 도구로 인식하고 여성을 철저히 인간이 아닌 성적대상물로 이용한 극명한 예가 전쟁 중의 성노예인 것이다.

물론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성노예로서 그분들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노예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중군 위안부'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성억압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을 유린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로지 남성들만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존재했다는 면에서 노예와 같다.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성억압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이다.

끌려가셨던 할머니의 울음소리에는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함께 묻어 있다. 그 울음은 언제 내 것이 될 지 모른다. 그리고 이미 내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내 몸이 남성의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가부장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드러낸 할머니들과 그 분들과 함께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8년째 접어들었다. 그 움직임과 함께 하고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여성인 우리가 좀 더 불행하지 않게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98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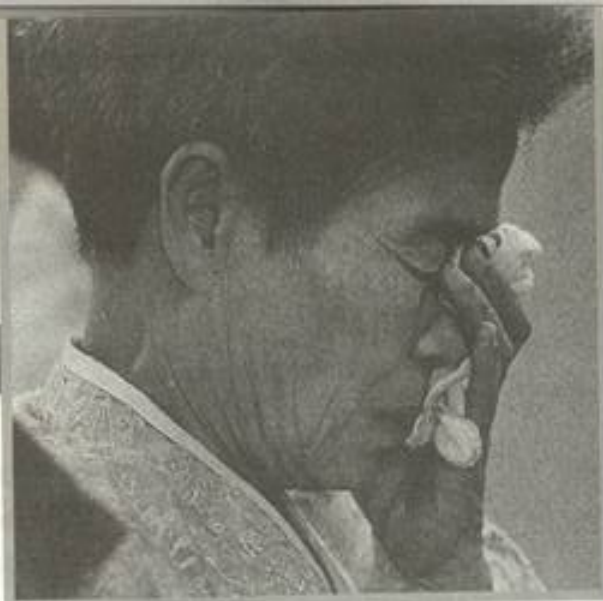
'정신대'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와 여성운동단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었다. 역사상 전쟁시에 여성은 늘 희생자가 되어왔다. 그 사실로써 정신대 문제는 일본군 정부가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여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전선으로 수송하여 체계적으로 성노예를 강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규약과 국제법은 이것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국가권력의 성폭력적 성격을 규탄하는 여성운동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피해국 여성들이 참여하는 연대운동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95년 일본정부가 이미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은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고 도덕적 책임만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국민기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런데 98년 1월 6일, 국내 일간지인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등에 일본의 국민기금 측에서 전면광고를 실었다.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정신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일간신문만을 골라서 전면 광고를 실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대협은 이 국민기금의 전면광고로 많은 독자와 피해자들이 호도될 것을 우려하고 국민기금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의도에서 1월 23일 국민기금 대응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게재했다. 그후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정신대 할머니 지키기 모금'을 1,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대협 모금 1인당 410만8천원과 정부지원금 3천150만원, 총 3천560만8천원이 할머니들께 지급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국민기금과의 싸움을 일단락짓고, 자칫하면 돈싸움으로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일본정부의 배상을 향한 깃발을 높이올렸다.

**시모노세키 재판판결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극복되어야 할
근원적 인권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

'제 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이번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국가에 의한 전쟁범죄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각나라 사정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겠지만 공동으로 뜻 있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2000년 12월 개최가 제안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하기로 한 일이 결의문에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전범법정은 여성의 힘으로 전쟁 중 당한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될 예정이다.

시모노세키 재판 승소

〈시모노세키 재판 경과〉

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치 현 지방법원은 2차 대전 당시 종군 위안부로 성적 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3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30만 엔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분석〉

시모노세키 재판의 판결은 "일본국 헌법질서의 근간적 가치에 관련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것이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 침해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유린한 것이며, 게다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극복되어야 할 근원적 인권문제"라고 자리매김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 일본 국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이 인정됐다.

〈의의와 한계〉

이 판결에 의해, 다른 아닌 일본의 국가기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국의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공식사과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청구된 정신대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배척되었고, 국제법 위반 여부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상충되는 하급심판결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철저히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여성인권유린의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사이버 여성공간 OPEN!



아무리 많은 것이 연구되고 그 결과물이 축적되더라도, 그를 필요로 하는 이는 이의 손 닿는 곳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이번에 개장한 이화여성학 홈페이지와 이화여성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데 일단 의의가 있다. (어느 분야에든, 그 분야에 특히 관심있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편리한 방법이 필요할 터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뿐만이 아니다. 그것이 '실천학문'이라는 여성학일 경우, 비단

그러한 '관계자들' 뿐 아닌 그 구성원들이 연구와 운동에 있어서의 환경 자체를 이루는 이화에서까지 여성 대중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유감스러운 현실이 버젓이 자리해 왔기 때문이다.

남성의 것이라 인식되어지던 컴퓨터 과학기술-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모두 여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여성공간을 만든 것 자체로서도 이 홈페이지들엔 여성주의적 의미가 부여될 터이다. 그러나 그를 이용해 여성들끼리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 또한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스펙트럼의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의 도구이자 목적으로서도 홈페이지는 유용하다. 혹자가 아직 여성 대다수에게 아직 컴퓨터 네트워킹이란 심적으론나 물적으론나 멀기만 하여서, 또는 웹(World Wide Web : WWW)이란 공간이 이미 다수 남성에게 발빠르게 강점되어 여성의 상품화와 긴밀한 이해를 두고 있어서 그 공간의 점령과 환경 구축이 여성에게 쓸모가 없다고 속단한다면, 그에게는 이 남성중심적 세상에서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겠다. 사이버스페이스, 이른바 온라인상이라 불리는 세계가 리얼스페이스-현실세계의 또다른 반영, 즉 권력공간이라 보고 현재 그 영역의 굳어 있지 않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공간에서의 주도권을 또다시 '리얼스페이스'와 같은 가부장제의 질서에 넘기기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 스스로가 쓸 매체로써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드디어 그 공간들이 마련되었다.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기나 쓰기가 '기술적'으로도 결코, '우리'가 겁낼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은 사용자인 이화인 모두의 몫이다.

이화여성학 홈페이지

http://ews.ewha.ac.kr

▶ 이화여성학 첫화면, 찾고 싶은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하부 메뉴로 들어간다.

▶ 각종 작료가 검색가능하고 일부 간행물은 화면상으로 내용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보통의 논문은 논문 초록이 제공된다.

▶ 특정 주제에 대한 시론이 제시되어, 이화인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화여성학 홈페이지는 여성학과 관련하여 여성학 자료실, 여성학 연구, 여성관련 사이트, 여성학 포럼, 페미니즘 문화 비평, 그리고 학내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이화의 논으로라는 메뉴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원이 주관하여 제작하고, 학내 연구기관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 관련 연구를 집대성하고 정보자원으로 제공하며 개인과 단체들의 소통 도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

WEBSITE

이화의 눈으로

http://ews.ewha.ac.kr/ews/m10ewha
(=이화여성학 홈페이지 첫화면 이화의 눈으로 선택)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 이화여성학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 아래의 눈 모양 아이콘 **이화의 눈으로**를 클릭하면 이화여대의 그 책임이 오목조목 담길 공간이 나타난다.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성위원회의 소개글
▶ 팜팜이는 글자인 **여성위원회 홈페이지**로 클릭을 선택하면 이화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로 직접 옮겨갈 수 있다.
▶ NEWS와 E-Mail, WHITEBOARD는 이화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동일한 공간이다.
▶ 아랫쪽의 포스터 그림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행사와 해당 자료집 목차가 설명된다.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상호적인 위치에 있겠지만 분명 같은 것은 아니다. 둘을 완벽히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평등한 질서-여성주의를 사람들에게 속삭여 설득시키고 즐거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라 할 때,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경우 그 가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크게 활동함에 있어 그 비교될만한 특수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화여성학 홈페이지 내에서 이화인 각자 스스로가 내는 작은 목소리가 담길 곳은 어디가 될까. 이화여성위원회가 참여하는 이화여성학 소모임(가)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이화의 눈으로**가 바로 그 펼침의 장으로 제시된다.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 정기적으로 주제가 바뀌는 자유토론장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 알림 게시판. 이화인 모두 쓸 수 있다.

이화여성위원회 홈페이지

http:// mm.ewha.ac.kr/~9567005

넘쳐나는 매체들 속, 정녕 이화인이 주인되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더구나 이야기 하고픈 주제가 '나는 여성'이라는 최초의 자기 정체성 찾기에서 출발한 고민일 경우, 사회는 물론 이화에서까지 그 '구태의연'하고 '편파적'이라고 폄하될, 나 자신의 이야기들이 정당히 수용되고 나누어질 만한 안정된 곳은 찾기 힘들다.

여성위원회는 이화인 속의 자치단체로서 이화인들과의 보다 자유롭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그리고 폭넓고도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화여성위원회가 이화인과 이야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주로 대자보와 자료집, 프린트 유인물 등이었다. 그러나 새 매체인 여성위원회 홈페이지는 보다 쌍방향적인 대화를 가능케 하고, 생산물을 접하는 이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의 편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면에서 그간을 보충하는 한 대안이다.

정보자원의 역할을 하는 단락으로, 현재 이화여성위원회가 펴낸 각종 자료집 등 편집물 13권에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NEWS! E-MAIL WHITE BOARD

이화의 눈으로 Through the Eyes of Ewha Women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정보와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여성 관련 소식을 소개하고

이화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 첫화면,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나열되고, 가장 위쪽에는 대학을 위한 아이콘들이 있다.

▶ NEWS!를 클릭하면 현재 여성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다. 진행하는 사업들과 행사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올라간다.

▶ E-MAIL을 클릭하면 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홈페이지를 둘러본 소감, 여성위원회에 전할 의견, 게시물을 읽다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낸다.

▶ WHITE BOARD에는 알리고 싶은 이야기, 공유하고픈 소감, 시비결 만한 일상에 대한 불만 등을 자유롭게 적어 올려 놓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

수록된 글을 열람 목적에 따라 찾기 쉽게 모두 주제별로 나누어 묶은 **여성주의 문화, 주제마당, 여성연대, 성폭력담론, 여성위원회?**, **여위공동체**가 있다. 이 각각의 메뉴에서는 다시 소주제로 나뉘어진 글들을 화면상에서 전문 그대로 볼 수 있다.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보충된다. ■

3회 페미니즘문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여성들의 공간인 이화에서 페미니즘 문화제를 연다는 것, 온전히 우리 여성들의 몸짓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본다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부셔본다는 것, 씹어본다는 것, 그 즐거운 저항의 흥분이 아직 추운 삼월 닷새간 이화를 맴돌았죠. 당신도 그 축제에 초대받으셨지요?

우리의 적들은 교활합니다. TV를 켜면 그 속에서 우리를 내리누르고 전철 안 광고 속에서도 신문속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너무도 편안한 그 사람의 말 속에서도 우리를 움아매는 굴레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뇌되어 내 안에서 소름 끼치는 남성중심적 가치관의 모습이 발견되게 될 때는 참담해지곤 합니다. 무엇이 불만이라고요? 피해 망상 아니냐고요?

아니요. 나는 다만 불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세뇌시키고 만들어가는 방식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계가 구성되는 방식, 읽혀지는 방식은 남성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배제된 곳에서 여성으로 살아갈 때의 거북스러움, 질식감은 아무리 모른 척하려 해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 불행함에서 달아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유형 무형의 강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반역을 꾀해봅니다. 우리를 잡아 묶고 있던 문화, 바로 그 곳에서부터요.

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인) 나의 눈을 나의 입을 나의 귀를 가지고 싶습니다. 제발 맞지 않는 렌즈와 뇌를 나에게 쏘서박지 말라고 지배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나를 길들이지 말라고 애걸해봐도 소용없겠조.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수 밖에 없겠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올 삼월에 열렸던 페미니즘 문화제는 그 싸움, 축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축제에 초대받으셨지요? 축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23일 제3회 페미니즘 문화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제>가 열렸다. 조금 쌀쌀한 이화광장에서 율동인들의 공연으로 시작한 개막제는 이화여성주의문화상 공모작인

언더그라운드 무용팀 <가관> 언니들의 멋진 춤, 돌꽃모임의 지하철 성추행 퍼포먼스, 맞아맞아 베스트 5-이런 남자 자르고 싶다고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각자의 소망을 적은 천을 이어

상설전시와 하층전시관 팔라나에서 열렸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든 흰 띠를 등글게 나눠잡고 액땀의 풍물 소리에 맞춰 다같이 강강수월래를 추는 것으로 앞으로 이어질 행사에의 기원을, 손불잡고 뛰어 다닐 수 있는 여성공간에의 축복을 대신하였다.

둘째날 이화 총연극회와 함께 준비한 토론극 <행복한 집으로 오세요>가 공연되었다. 어릴 때부터 성역할이 학습되는 가정, 언제나 어머니의 희생으로 안락한 컴퓨터야 할 가정, 그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역할을 관객들이 직접 연기해보는 연극이었다. 결국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연극은 막을 내렸으나, 그 탈출구 없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묘한 힘이 솟아났던 자리였다.

셋째날 지혜씨의 강연 <사랑, 그 죽이는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왜 그리도 쉽게 여성에게는 사랑이 모든 것이 되는지, 불평등한 양 성의 관계 안에서 뒤틀리지 않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 - 사랑, 그 지극히 사적이고 낭만적인 단어 속에 숨겨진 권력을, 사회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구성된 연애의 각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주제였던 '사랑'을 넘어 페미니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넷째날 <여성주의 단편 영화>가 상영되었다. 97년 여성영화제 수상작인 '있다'와 '헬킴' 그리고 여성주의 문화상 공모작인 '지하철' '딸'

'백화점' 등을 본 후, 그 영화의 감독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종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으로서 독립영화를 찍는다는 것, 여성영화의 가능성,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다섯째날 정신대 연구회의 주최해란씨의 강연 <여성의 눈으로 본 정신대 이야기-정신대, 위안부, 성노예>이 있었다. 할머니들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 강연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를 이야기함에 있어 어째서 여성주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신대문제해결운동의 진행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두 개의 전시전이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라는 이름의 전시전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별을 구별하여 다르게 키워지는 모습들을 아들의 방과 딸의 방을 연령별로 통과해가며 눈과 귀로 확인하게 함으로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느끼게 하였으며, 그 옆 전시실에서는 정신대문제의 자료사진과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호응을 받았다.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짓밟히고 무시되는 여/성/노/동/권

- 98년 제일은행 명예퇴직 대상자 1220명 중 여성 1000명
 98년 8월 15일 안내요원 전원이 여성인 한국통신 수신자부담 서비스 강제 퇴출
 98년 8월 7일 현대자동차 파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안 직원이 여성 전원인 식당 조합원 180여명 우선적 정리해고 + 얼마간의 정리해고

위기 시기에 드러나는 자본과 가부장제의 결탁

여성은 1차적인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감정

(4월 11일)

정년
임제명
제출명
수령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97년 후반기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이후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1차적인 희생자는 예외없이 여성이 되고 말았다.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상황 속에서 여성을 내모는 갖가지 가부장적 음모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IMF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속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 1순위이며, 남성중심의 실업대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 와중에 여성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발전해온 여성복지정책들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고개숙인 아버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라는 식의 언론의 구호들 속에서 가사 노동으로 지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해고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위기에 부딪친 여성 노동자들은 서서히 묻혀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

은폐되는 실업통계 속에서의 여성.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통계는 현실의 위기를 은폐하려는 비현실적이고 보수적인 통계

이다. 공식통계 상으로 실업이란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조사기간 1주일 중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의 개념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실업상태에 가까운 다수의 무급가족종사자와 단시간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해도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직을 포기한 상태인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가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구직활동을 단념하게 되어 실망실업자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현실적인 실업률은 정부의 실업 통계상에 나타나는 것 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수적인 통계로 낮은 실업률을 조작해 내고 있다. 즉, 완전실업률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여성 복지정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확대하여 비경제활동인구¹⁾와 함으로써 기만적으로 전체 실업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1) 조사대상 1주간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를 의미한다.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초,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참여한 자, 구직 단념자 등' (통계청, 1997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을 의미한다.

여성-정리 해고 0순위?!?!

최근, 울산의 현대자동차 파업과 협상에 이르기까지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수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 이상 권리를 빼앗길 수 없기에 힘을 모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긴박한 대결과 타결되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속에서 잠시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사간의 대립이 극렬한 양상을 띠는 와중에 국민회의와 노사정위원회로 구성된 합동중재단의 중재안을 잠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합동중재단의 중재안의 내용은 '그 규모에 있어서 식당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1백80여 명을 정리해고 기본 대상'으로 상정하자는 것이다. 식당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45세 이상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엄연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인 식당 조합원의 우선 정리해고를 '중재안'의 명목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합동중재단의 중재안의 내용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리해고 0순위로 위치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은 가사일이 우선이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직장을 빼앗는 것이 정부의 중재안이라면 그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남성중심적 중재안일 뿐이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여성의 노동을 착취한다.

최근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의해 여성이 또 한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측면이다. 계약직, 파견 근로제, 임시직 등의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의 직종이 비정규직화 되어 여성들에게 불안한 고용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게 된 '파견근로제'를 생각해 보자. 파견근로제란 파견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다른 회사로 파견하여 그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파견근로제는 우선 계약의 주체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있다. 즉, 노동자의 고용은 사용업체가 파견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업체에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파견근로자는 자동해고되게 되는 것이다. 파견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승진, 승급에서 제외되며 정규직에 비해 30%정도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결국 노동의 착취라고 밖에 생각될 수 없다.

이러한 파견근로제는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파견근로제는 여성들에게 중심으로 작동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가 지정한 파견 근로 대상업 무인 27개 직종 가운데 영양사, 컴퓨터 보조원, 비서 등 여성인력이 70~80%에 달하는 직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중심직종의 퇴출.

그래도 여성 노동자는 만만하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출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퇴출되고 있는 사업장이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직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

히 그 사업장의 경제성이라는 이유가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8월 15일 0시를 기하여 퇴출된 한국통신의 '수신자 부담 서비스'의 경우가 그러하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의 안내원의 경우, 228명 전원이 여성이며 그 중에서도 32%는 여성가장이라고 한다. 한국 통신 측에서는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수익성의 측면에서 퇴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에 의하면 수신자 부담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밤 시간에 적은 숫자의 안내원을 배치하고 낮 시간에 필요 이상의 인원을 배치함에 의해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퇴출임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직원 전원이 여성임을 생각할 때, 기업에서 흔히 내세우고 있는 논리들, 즉 '그래도 여성이 잘리는 게 낫지 않느냐', '남성들은 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성들이 자르기에 그나마 만만하다'는 논리의 실질적인 사례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가산점 부여제도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민간기업의 입사시험에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군복무가산점의 부여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성차별적인 행태가 횡행하는 노동시장에서 군가산점의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태도이다. 군가산점 도입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무임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재생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함이 당연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해고가 가능해지고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을 도입한다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남성중심적 실업대책들.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임금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즉 남성 가정이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따라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여성의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되고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임금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 남성 생계부양자가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여성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남성중심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것은 여성의 실업을 정당화하고 정부가 담당해야 할 노인복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
남성 생계부양자가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아동 복지, 아동 교육 등을 여성에게 '주부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전담시키고자 하는 가부장적 정책인 것이다. 여성에게 육아, 가사노동에 이르기까지의 과부화된 일을 '주부의 의무', '여성의 위대한 희생정신' 등의 수사어구를 내세워 전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이중의 간교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즉, 정부가 해야 할 복지를 주부가 전담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대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실업자의 비율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이장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나마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혜택을 입게 되긴 하였지만 그 실질적인 한계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실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광고되어지고 있는 실업대책 대부분은 정부의 경우, 그 자격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정되고 비세대주가 대부분을 받기 위한 자격은 많은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여

성 비세대주들이 혜택을 받기란 힘든 일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며 직종 역시 남성 직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약 20% 가까이가 여성 세대주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억압적인 가부장적 정책인 것이다.

이제, 여성의 노동권을 다시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최근 노동부에서는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과정'을 개설해 취업훈련기회를 주고 훈련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위한 공공부조를 대충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애초에 실직여성가장들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면 많은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다소간의 것들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야 하는가.

실업률을 제대로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정부의 실업통계를 은 보수적이고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춤으로써 현실을 은폐하는 통계율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업률에 대한 통계 수치를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멕시코 등은 실업의 내용에 따라 완전 실업부터 실망 실업에 이르기까지의 실업 통계들을 6, 7가지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실업률



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들의 고용 안정, 고용 창출, 실업 대책까지!!

우선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 중심의 정리해고, 여성 중심 직종에 대한 우선적인 퇴출 등, 성차별적인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한 대책의 하나로 여성 근로 감독관의 증원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사용자들의 행태들을 감시하고 형평성있고 평등한 작업장의 분위기를 촉구하는데 여성근로감독관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근로 감독관의 증원은 작업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관행들을 감시, 감독하는 효과 이외에 근로 감독관의 증원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공공 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고용 창출 역시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은 일시적이고 임금 수준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또한 남성 가장 중심의 고용 창출은 여성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공 분야에서 여성 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5인미만 사업체까지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영세사업장에 집중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 고용보험 미신고 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을 여성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여/성/노/동/권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많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며 고용보험의 실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던 만큼 요구할 것들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들 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을 가사노동에 대한 당연 의무를 지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노동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식의 여성의 노동권을 폄하하는 노동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성은 경제 위기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여성은 노동하지 않은 적이 없다. 어떤 대가조차 받지 않고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으며 이중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 이제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어섰으며 여성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실업대책은 남성가장 중심이며 노동자의 문제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는 항상 간과되어 와야 했는가. 여성 노동자 문제, 더 이상 경제위기라는 말로 덮어질 수는 없다. 여성 노동권은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나 개인적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는 여성들의 처절한 생존권의 문제이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지난 6월 25일 이화 여성위원회를 비롯하여 연세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등의 몇 개 학단위가 모여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는 이제까지 한 번도 독자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여성 노동권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아온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찾고자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항상 노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은 간과되어 왔다.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부터 임노동까지 여성들은 이중 노동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은 부차적인 것 정도로만 인식되어 온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내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여성의 의무로 이야기되어지고 당연시 되어왔던 가사노동의 측면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인 영역 속에서의 노동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부분은 여성들이 지당히 말아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이야기되고 폄하되어 여성들은 이중노동을 감수하면서도 임노동 시장에서 차별 받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는 노동

의 담론부터 다시 제기하여 여성들의 노동권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족식 이후 대학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여성국,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촉구를 위한 7월 9일 1차 집회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가져나갈 예정이며 지난 7월 17일부터 1박 2일 간의 민우회에서 개최하는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캠프를 함께 하였다. 또한 서울시 실업대책본부의 청년, 여성분과에서 개최한 실업대책간담회에 참가하여 여성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의 대안 모색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현재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는 신규여성실업자의 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활동을 가져나가고자 한다. 현재 신규실업자의 수가 20만이 넘으며 신규실업자들의 문제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신규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신규여성실업자의 경우 여성들은 취업 원서조차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애써서 작성한 이력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상황들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간과되거나 정부의 일시적인 대책만이 난무하는 상황을 타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게하기 위해 닦쳐온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목소리로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판단이 서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허구적인 통계치 속에서 신규여성실업자들의 문제는 목소리도 내기전에 묻혀버리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 위기를 빌어 줄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구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 되어버리는 상황이고 정부는 낮은 실업율을 위해 그러한 것을 은폐하고 은근히 조장하기 까지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다고 해서 취업의 길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어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업은 운 없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광고에서 나오는 '커리어 우먼'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신규 여성 실업자 문제. 이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12년 후의 나의 문제인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미봉책이나 대학에서의 지도자 육성 식의 교육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에서는 신규여성 실업자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부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소수가 아닌 신규여성실업자 모두의 문제이니 만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이화여성위원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행동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학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시립대 총여학생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여성의 현실, 몸으로 느끼고 희망을 조직하자!' 에 다녀왔습니다!

예비취업여대생 캠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살겠다고 말하는 여대생은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60년대 268%에서 1996년 505%로 증가했다는 통계에서도 잘 보여진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나마 높아진 것은 여성을 '집사람'으로 보는 가부장적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



예비취업여대생 캠프

〈예비취업여대생 캠프〉는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선배들의 현장감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자 기획되었다.

이 아니라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력의 필요 때문이었다. 1996년 말 IMF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해 급속히 가정으로 쫓겨나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여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 사회는 '너희는 시집이라도 가면 되지 않느냐'며 아무도 여대생들의 취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주최로, 동덕여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가 함께 준비한 〈예비취업여대생 캠프〉는 이렇게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상황속에서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고 선배여성노동자들의 현장감있는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풍부하게 설계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진행된 캠프는 약 35명의 여대생들이 모여 크지 않은 규모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17일 12시 30분 정도에 모여 간략한 개원인사를 한 후 낮설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익히기 위한 '나 표현하기-이미지 폴라쥬'를 했다. '나 표현하기'는 무수한 이미지의 총체인 잡지를 훑어나가며 자신의 눈길을 끄는 이미지, 또는 문자 등을 찢어서 색지에 자유롭게 붙여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벽에 붙인 후 작품을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서로의 이미지를 기억하며 친근해지는 과정이었다. '우리의 꿈을 밝힌다'는 제목 그대로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간사님의 지도에 따라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돈에 관한 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식사 후 영상과 강의로 꾸며진 '여성의 현실을 느끼자'가 진행되었다. 여성노동과 노동 시장에 있어서 여성차별(결혼 퇴직제같이 가시적인 것부터 비가시적인 것까지)에 관해 패러디한 비디오를 본 후 이제껏 일하는 여성이 어떻게 성차별 당하고 있고,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남아있는지 등을 최명숙 간사님의 강의를 통해 TV속 캐리어 우먼의 환상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가 직접 접할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기다리던 '취업피담-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돌아왔다. 이날 참석하신 선배님들은 지하철 공사 역무원이신 이은주 선배님, 페미니스트카페 고마의 사장님이신 정경애 선배님, 연구원이신 백은옥 선배님, 중앙일보 신문기자인 김정수 선배님, 단체 활동가이신 이해경 선배님이셨다. 각 직업이 하는 일, 취업경로, 이 일을 결정한 이유, 평상시 일의 스케줄, 일의 장단점, 남녀차별여부, 초봉과 봉급체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말 등 미리 준비된 18가지의 질문에 발제를 하신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원하는 선배님과 4~5명씩 조를 짜서 개인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취업간담회와 이 캠프의 차이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대규모의 취업 간담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바로 잡아낼 수 없었다면 이 시간은 자신이 관심있는 직종의 선배님(캠프 참가자들의 희망 직종을 미리 조사하여 통계를 낸 후 선배님을 섭외한 것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과 얼굴을 맞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캠프에 참가하신 선배님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선배님들에게 위의 18가지 질문을 설문조사하여 자료집에 기재해 캠프 참가자들이 폭넓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취업피담 시간이 끝나고 캠프참가자들과 간사님들이 한 방에 모여 서로 각자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는 뒤풀이 시간이로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데스에 맞춰 가볍게 아침체조를 한 뒤 우리는 '희망'을 조직했다. 취업을 할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그에 관한 OX게임을 하고 취업팀과 실업팀, 두 부류로 나눠 취업팀은 취직 후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해결법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실업팀은 신규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현실 속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을 만들어 피켓을 제작했다. 그리고 캠프참

가자 일동은 대학로로 나갔다. 여성노동권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세상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와 캠프참가자 일동이 함께 퇴보하는 여성노동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여성에게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가 배부른 소리가 아닌 절박한 요구인 것을 대학로에 나와 있던 여러 시민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이는 비단 당시 대학로에 나와있던 시민 뿐만이 아닌 세상을 향한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주지않는 가부장제에 대한 우리의 외침이었다.

여성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 도중에 '남자도 팔리는 데 무슨 여자가 나서냐'며 술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시위가 잠시 중단되는 일을 겪으며 가부장적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다시 체감할 수 있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남자는 당연한 일이고 여자는 여가를 때우는 수준으로 사고하는 이 갑갑한 현실 속에서 여성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고달픈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여성 노동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캠프 기획단이 캠프에 뒤이어 보다 많은 여대생들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예비취업여대생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도 여대생 취업문제 해결에 관한 보다 지속적인 움직임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미 장기구직자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취업 원서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 여대생, 모든 여성에게 있어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딪히는 용기와 끈기로 정당한 여성의 노동권을 추호해야 하겠다. ■



이화인의 권리찾기 성폭력학칙제정을 요구하며

이화는 성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광고에서부터 96년까지 12년간 지속된 대동제에서의 집단 성폭력,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 이대라는 이름을 달고 유포되는 포르노 비디오, 그리고 공론화 되지조차 못한 너무나 일상적인 성폭력들..... 수많은 사건들을 대부분 문제로 인식되지도, 성폭력으로도 인지되지도 못하고 있다.

성폭력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지배세력 즉 남성의 사고와 느낌을 '객관'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신정휴교수 성폭력사건(일명 우조교사건)에서 언급된 '품위를 갖춘 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관점임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제임을 규정하는 명명권은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전유되어 왔고 우리는 그것이 성폭력이나 아니라는 개념이 지칭의 문제에서부터 그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성폭력이란

지난 몇년간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가 대학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남녀권력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이를 공공히 하는 기제임이 어느정도 널리 인식되었다. 이제 단순히 성기중심적인 강간만이 성폭력이라 생각하는 사고는 적어도 외견상 지양되어야 할 바로 이야기되고 있고 성폭력이 성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라는 인식이 차츰 대중적 기반을 얻어가고 있다.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임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이 아닌 성을 기반으로 한 남성의 권력 행사를 성폭력으로 사고해야 한다. 성권력을 기반으로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성폭력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gender violence)은 성폭력이다. 성에 기반한 권력이 어떻게 폭력으로 작용하는지 이하는 지난 12년간의 대동제에서 직접 경험하였다. 고대생은 이화대동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집단 폭력을 가하였다. 그러한 행동이 단순히 '남자들의 개기'나 놀이가 아니라는 것은 대동의 자리인 이화공간에 침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행위가 왜 유독 '여대'에서만 관습적으로 자행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고대생 집단난동을 성폭력으로 규정지을 수 있게 한다. 고대생 집단난동을 성폭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고대의 난동은 불평등, 남성지배,

위협, 강제 등성의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차별 또한 성폭력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성폭력이 권력

의 문제이며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행사로 사고될 때 여성이 겪는 많은 경험을 성폭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물리적 강제나 언어적 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생각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순히 '성적 행위' 뿐만 아니라 성에 기반한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별(gender)에 기반한 행위' 즉 성차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로 성차별과 성폭력은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며 실제 경험에서 성적 행위와 성에 기반한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중첩되어 있고 또한 성에 기반해서 성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성폭력개념의 확장은 단순히 성폭력을 범주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이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인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성폭력 개념으로 전에는 단순히 '폭력'이라고만 불렀던 것들, 성차별, 그리고 기타 여성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

성폭력은
물리적 강제나
언어적 표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행위로 생각되지만
공통적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하고 문제제기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여성임에 기반하여 가해지는 행위들을 성폭력으로 규정 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의 문제이기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학칙이라 함은 학내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의미만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려 한다.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함과 동시에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리고,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현재의 성폭력담론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대에서 이러한 성폭력학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부터의 상부하달식 학칙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생성된 학칙임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은 자치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주로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나타나는 여대에서 이러한 학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의 학교에 성폭력 학칙이 있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학칙은 단순히 성폭력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기존의 성기중심적 해결과정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의 반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칙으로 제정됨에 의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성폭력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발생하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권력관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력의 하위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피해자나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대학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면, 대학내에서 성폭력사건으로 문제제기하기가 힘들다. 이는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대학내의 왜곡된 성담론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대학 사회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라도 대학사회의 구성원이면 학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물론 그 적용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



이화인의 권리 찾기

이화인의 권리 찾기

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응들은 더 효과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적어도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겪어야 할 지난한 제 2, 제 3의 성폭력을 막는 데도 기여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의 문제점을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파악한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는 성적 자율권의 침해와 더불어 교육권-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대학 사회는 명백히 대학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녔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의 책임여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대학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대학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상이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예방 대책 수립 등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돌리며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

다. 하지만 더이상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권은 학칙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대학 당국은 성폭력을 자신의 일로 받아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가져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서만이 아닌 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서 그러한 대학 당국의 책임있는 활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학칙은 대학내의 새로운 성담론을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는 비단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다. 전반적인 대학 공동체 내의 성담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자체의 근절을 주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에 대하여 대학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대학 문화라는 것이 구성되고 성담론이 형성된다. 이는 특정 공간의 문화나 성담론으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껏 대학 사회가 사회에 대하여 지녀온 선도적인 문제제기의 역할이 이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성담론의 유포에서도 나타날 것임을 의심치

성폭력 학칙은 대학내의 새로운 성담론을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는 전반적인 대학 공동체 내의 성담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폭력 자체의 근절을 주목적으로 한다.

않는다. 흔히 진보적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성폭력에 대한 성기중심적,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피해자 중심의 담론을 가져나간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학칙을 통하여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학 사회의 또다른 특징은 그 구성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순간순간 생성되어 나가는 새로운 성문화가 아니라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의 뒷받침을 통하여 대학 공동체 내의 성문화가 끊임없이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칙의 뒷받침을 통하여 재생산된 대학 사회의 성담론은 사회에도 문제제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학칙에 있어서의 원칙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의 가해자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듯 가해자이며 동시에 사회적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이므로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 가해자의 죄과는 관대하게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죄과가 돌아가는 웃지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 내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에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학칙의 단순한 처벌체계 이상의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원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1. 성폭력의 개념에서의 원칙

-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 뿐 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다.
-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제정과 적용에서의 원칙

- 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성폭력 학칙은 유연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성폭력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다. 우리는 더이상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성적자율권의 확보를 위해, 대학구성원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이화인의 권리를 위해 성폭력학칙제정을 요구한다. ■

98 여성연대 한 판

다양한 단위들의
연대 모색은 서로간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각각의 단위들이 모여서
공신력을 획득하여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어
한 단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98 여성연대 한 판은 각기 여성임을 기반
으로 활동을 벌여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현재까지 대학내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서 여성운동의 주제와 방
향은 다양화되어 왔다. 여성주의 문화실험, 성
폭력, 여성노동권, 여성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활동은 여성운동의 변화, 발전을 의미한
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그동안 각기 진행되었
던 성과들을 하나로 모아 여성운동의 흐름과
변화를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다
양한 단위들의 연대 모색은 서로간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각각의 단위들이
모여서 공신력을 획득하여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어 한 단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98 여성연대 한 판은 작가, 창녀, 대학생, 가
정주부, 회사 비서, 수녀, 모델,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위치에 서있는 여성상을 상징해보고,
그 다양성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
는 '가상인물 완성하기'라는 작업으로 출발하
였다. 98 여성연대 한 판은 크게 대학내 성폭
력 근절과 여성연대, 여성주의 문화창출이라는
주제들로 다채로운 2박3일을 꾸렸다.

1.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는, 작년부터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
의(연대회의)'에서 고민되어진 성폭력 관련 학

칙과 그 필요
성, 앞으로의
운동방향 등의
과제를 함께 풀
어보기 위한 자
리였다. 구체적
으로는 연대회
의의 학칙사업
을 알려내고,
학내성폭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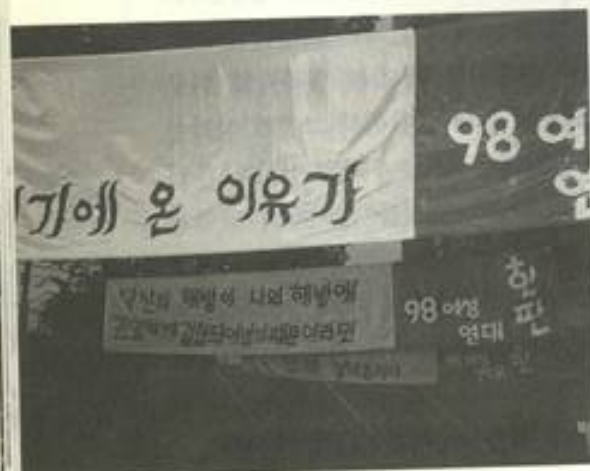
그 근절, 그리고 학내여성운동으로서의 본 학
칙제정운동에 관심있는 여러 포지션의 사람들
이 모여, 연대회의와 각 학교에서 보다 심화되
고 구체화된 그 이후의 고민까지를 총화해 내
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리로 가져나가고자 하였
다. 토론회는 성폭력의 개념, 학칙의 원칙과 필
요성, 학칙의 내용(1차 학칙안, 사법연수생 검
토 이후의 수정안), 학칙운동의 방향성을 그 내
용으로 하였다. 또한 학칙 제정 운동의 방향성
팀에서 현재 각 학교에서의 학칙제정운동상황
과 그 결과가 자료로 발표되었다.

2. 여성운동 대토론회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많은 변
화를 겪어왔다. "전체"운동에 단순히 복무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그 기반으로 독자
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철칙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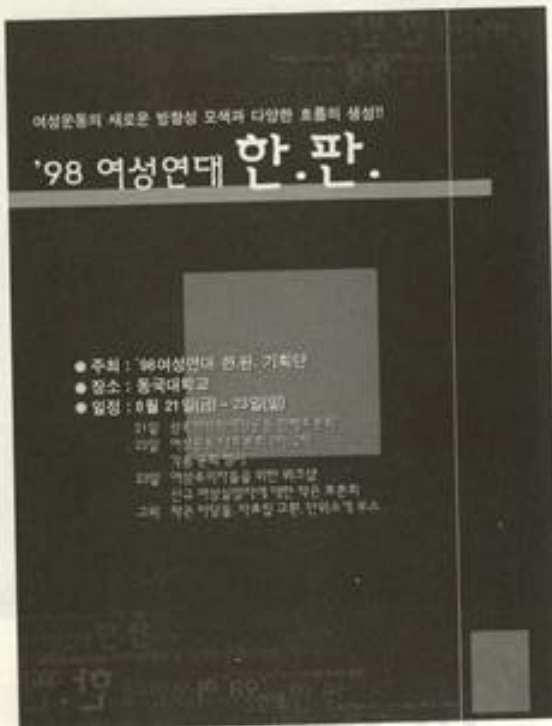


98 여성연대 한 판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려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멕시코 치아빠소의 어느 원주민 여성 -



을 해왔다. 지금은 여성운동이 이제까지 달려 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 좌표를 점검할 때이다.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규모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 이슈와의 문제, 조직체계의 문제, 대내/외적 연대의 문제들을 언어상의 악순환에서 끄집어내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다.

토론회 1 :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내용성에 대한 문제

☛ 여성운동이 어떠한 것들을 주되게 담론화하였으며, 다른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여성

98 여성연대

운동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들, 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천의 전략들

토론회 2 : 여성운동의 방법론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은 중앙집권제를 벗어난 여성주의적 운동 방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인자재생산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여성운동의 현 주소는?, 여성주의적 조직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주의적 조직의 내부체계에 대한 문제와 연대체 또는 '중앙' 조직의 필요성은 어떠한가? 대표자회의의 의미성은 있을까?

3. 낮 문화관 중 첩인경기

- 줄넘기('꼬마야 꼬마야') : 방식은 알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각 조원들이 발을 맞추어서 줄을 뛰어넘는 것이다. 팀웍이 핵심인 게임.
- 지하철 다리벌리기 : 지하철에서 다리를 꼭 벌리고 앉은 아저씨들을 보는 것은 혼란 경험일 터. 그런 아저씨들과 싸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 3:3농구 : 남자들의 전유물로서 남자들만이 스포츠를 한다는 생각을 깨기위한 게임.
-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

4. 밤 문화계 중 분장하기

가부장제에 희생되어 억울하게 죽은 여자귀신들의 한을 표현한 분장,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를 빚댄 분장, 과장된 여성성을 표현한 프리실라 분장,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려가며 마음대로 공간을 점유하는 남성들에 대한 분노 등 다양한 주제로 분장을 하여 퍼포먼스, 촌극을 곁들인 경연을 벌였다.

5. 워크샵

페미니스트에게 필요한 몇 가지 것들 :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사막에서도 여성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생존력을 키우는 것. 98 여성연대 한 판의 문제의식을 실제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한 Workshop,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푸념보다 '무엇을 이리이러하게 하겠다'는 기획안을 만드는 페미니스트를 만나는 자리.

그밖에

신규 여성실업자에 관한 작은 토론회,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의 알리는 판, 각종 여성운동단위들이 여러 가지 자료집 교환·판매를 위한 Booth 설치, 기지촌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

지금은 여성운동이
이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현 좌표를 점검할 때이다.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
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몸 = 예술? 감상물!



작년 이맘 때 이대 앞 거리에는 ISABEL제화의 구두만을 신은 여성의 대형 누드 광고가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거북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가시화된 것은 작년 겨울 PC통신 상이었다. ISABEL 누드 광고에 대한 이화인의 항의가 올라온 이후 이화여성위원회는 대자보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백지 자보를 통해 이화인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광고의 조속한 철거를

바라는 제안서를 ISABEL제화에 보냈다. 하지만 ISABEL제화는 광고의 예술성을 강조하며 철거를 미루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2월 초순에 후속 광고로 교체했다.

한산한 지하철 안에서, 혹은 바쁘게 활보하는 거리 한 복판에서 아래위로 훑어보는 남성들의 위협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여성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그들의 기준에서 잘빠진 몸매의 여성이든, 그렇지 않은 몸매의 여성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전 한 명문 남녀공학 대학에서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도서관 앞을 오가는 여대생들의 몸매에 점수를 매기고 큰 소리로 부르기까지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놀랄 정도의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외모에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모른다.

남성문화적 시선이 주류를 이루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 주체적 인격체로 인식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여자는 약간 멍청해도 이쁘면 그만이라고,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얼굴보단 몸매가 중요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남성에게 거의 모든 여성은 성적 흥분을 위한, 눈요기를 위한 감상물일 뿐이다. 여성을 주체적 인격체로 사 고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오직 대상으로 존재하고 정작 자신으로부터 타자화되 어진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작업은 너무나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길거리에서 직접 음흉한 시선을 접하지 않아도 잡지를 읽으면서 혹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우리는 온 몸이 벗겨지는 것 같이 충분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이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속성과 남성중심문화의 결합 때문이다.

성적 몸 = 예술? 감상물!

우리가 ISABEL누드 광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 광고가 부도덕하다거나 벗은 몸이 퇴폐적이고 혐오스럽다는 이유가 아니다.

3B(Beauty, Beast, Baby)를 쓰면 확실히 돈다는 광고계의 공공연한 얘기처럼 여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품화되며 여기저기서 벗겨진다-좀 더 야하게, 좀 더 섹시하게-. 그러면 서 그들은 여성은 그 자체가 예술이라고 둘러댄다.

우리가 ISABEL누드 광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 광고가 부도덕하다거나 벗은 몸이 퇴폐적이고 혐오스럽다는 이유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접하게 되는 여성 몸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시선들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PC통신 상에서, 그리고 백지 대자보를 통해서 ISBEL누드 광고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철거를 요구한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성")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재단하는 사회의 억압적인 시선들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강요되어지고 보여지고 상품화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시선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다. 시선을 끄는 대상으로서 여성이 선택(?)되어 그 나체가 응시된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속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상업 광고에서 女體의 예술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웅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영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섹스신, 노래방 비디오 속 수영복 입은 여성의 어색한 포즈, 타이어 광고의 타이즈만 입은 여성 그리고 여체모양의 손잡이와 맥주잔 등 순간순간 우리를 민망하게 만들고 또한 분노하게 만드는 이 남성중심 문화속에서 여성의 몸은 여성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남성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대상물로서만 인식하며 여성들조차도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도록 교묘히 세뇌시키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란 정말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함몰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anti를 걸며 부딪혀 가자. ■



빨, 이대



98년 5월, 여성위원회 방으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왔다. 1대 앞 어느 카페에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차를 마시고는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비디오 테이프 하나 있는데 내용을 보니 좀 이상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길래 다음날 즉시 그 비디오를 찾아왔다. '빨, 이대'라는 이상한 제목의 비디오는 앞부분은 한동안 유명세를 떨쳤던 '빨간마후라'와, 뒷부분은 한 여자대학의 화장실에서

옹변을 보는 여성의 성기를 클로즈업한 내용으로 짜집기되어 있었다. 비디오의 뒷부분 '이대'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대학의 졸업식 장면과 화장실에서 옹변을 보는 여대생의 성기가 한 컷씩 계속 교차된다. 물론 처음에 비치는 교정은 이화 교정이 아니며 주인공들도 이화인들이 아니다. (이 포르노는 일본 포르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 비디오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었다.

우선, 화장실에서 옹변을 보는 여성의 성기를 클로즈업하는 방식의 포르노물이 제작되고 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디오의 제목을 굳이 '이대'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배설물을 쏟아내는 여성의 성기를 보면서 인격체로써 존재하는 여성을 부정한다. 사이사이에 교정을 걷고 있는 여대생들의 모습을 잠깐씩 보여주면서 화장실장면을 짜집기하는 식의 편집방식은 그들에게 있어 여성이란 '하체' 내지는 하나의 '구멍'으로서 존재할 뿐, 여성의 일상이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단지 남성들의 도구로서의 '성기'만이 중요할 뿐이란 걸 알게 해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단지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옷을 내리고 옹변을 보는 것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 비디오물로서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갈등구조나 스토리라인 없이 단지 여성의 하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흥미로운 일이란 말인가.

빨, 이대

'이대 포르노'가 남성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것은 그저 여성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치기어린 성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전반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과 폭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훑쳐보기'이다.

이 비디오를 제작하는 사람과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위치는 늘 숨어있으며, 비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화장실 안의 여성은 무기력하게도 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 즉 그들은 비디오의 대상여성에 대한 '시선의 지배'를 통해 그들의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신시키면서 정복감과 우월감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구태여 '이대 포르노'라는 제목으로 공공연히 남성들 사이에 알려졌던 것일까.

그들이 명명한 '이대'는 남성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일종의 잘나가는 '딱지'일 뿐이다. 그들이 사고하기에 소위 잘나가는 여자들의 집합체로서 '이대'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과시하기에 좋은 '명함'인 것이다. '이대'는 훑쳐보기 욕구의 극단인 이 저열한 '포르노'와 기막힌 상승작용을 보이면서 그들의 유치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자극한다. 자신의 마음대로 명명할 수 있고 훑쳐볼 수 있으며 강간할 수 있는 남성중심적 성문화 속에서 그들의 폭력은 끊임없이 조장되고 암묵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대 포르노'가 남성들 사이에 그토록 인기가 좋은 것은 그저 여성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치기어린 성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전반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과 폭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일상에서 시비걸기

내 몸에 손대지마!!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위협. 길을 걸을 때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나, 심지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편안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단지 내가 여자라는 '성'이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얼마전 내 친구가 지하철에서...'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나도 희귀하다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피해 사례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등의 이야기는 접한 적은 거의 없다. 왜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무도 해결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건지.....

이런 범죄에 대한 불감증은 그것이 이 사회의 minority로 존재하는 여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런 불편한 일상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 들꽃모임에서는 여성 민우회와 공동으로 올해 1월에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를 대상으로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을 요구했다.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결과 지하철 여승객 75% 이상이 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측에서는 승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를 통보해 왔고, 이에 들꽃측에서는 역을 중심으로 한 퍼포먼스 진행, 대학가 공동 명의의 성명서 발송, 언론을 통한 타당성 제기 등을 통한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을 얻어내게 되었다.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이 담론화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경고방송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남성들까지 싸잡아 매도하게 되며, 성추행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방송을 듣고 성추행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기존의 안내 방송도 거슬리는데 또 다른 방송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지하철내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라는 민망한(?)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은 왠지 거슬린다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너무나도 남성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하철 성추행 경고 방송의 대상은 성추행범일뿐이며, 선량한 남성들을 매도하는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위의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라는 '간첩 신고 방송'을 듣고 선량한 시민을 싸잡아 간첩으로 문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송이 단지 '간첩'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추행이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불과하다. 예전에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

분명 성폭력은 남성의 성욕이 너무나 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의 통념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실시되었던 버스내 금연 방송은 현재의 버스내 금연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은 다른 경고방송들-예를 들어 마약 등의 약물 복용 경고 방송이나, 담배나 술의 해를 알리는 경고방송-을 듣고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주장은 '성폭력'에 있어서 남성의 성욕은 주체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남성중심적 성인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이 자극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폭력을 막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하철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깊숙이 파고든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다. 이제는 사소하게까지 느껴지는 일상화된 범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범죄이다. 그리고 명백한 인격모독이며, 인권침해이다. 성추행은 듣기 민망(?)한 용어가 아니라 성행 위와는 명백히 다른 범죄일 뿐이다. 이런 일상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방송이라는 방지책은 아주 작고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방송조차 '듣기 싫다, 귀찮다' 등으로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복잡한 열차 내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쾌감의 상당부분은 열차 내를 꽉 채운 승객들로 인한 답답함보다는 언제 느껴질지 모르는 느낌에 대한 불안감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상적인 범죄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것은 선량한 남성들에 대한 보호가 아닌 범죄자인 성추행범에 대한 암묵적 용인일 뿐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내 성추행 경고 방송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열차 내에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열차 내에서 열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송을 접하고 성추행 경고방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성추행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경고방송 횟수도 열차 출발에서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에 그치고 있다. 또한 경고 문안의 안내문과 스티커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지하철 공사측이 언론사에 유포한 보도문에는 방송실시 후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지하철 성추행이 늘었다는 기막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율이 높아진 것은 신고의식이 높아진 바람직하고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적 해석과 안일한 보도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지하철 경고방송은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경고방송에 확실하게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더욱더 적극적 대책인 비상벨 설치나, 역내 성추행 신고·상담 전담기관 설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사실을 알리고,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하철내 성추행 근절을 위한 사회전반의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가정, 폭력 용인지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개인과 가정 내의 사적영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이제 사회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통념과 현실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여 부부 간에는 의례 싸움이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이 자행 되는 것을 공공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내 문제 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우리는 ‘여자와 북 어는 3일에 한번씩 두들겨야 제 맛이 난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맞을 짓을 했으니 까 맞는다는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때려서라도 교육시켜야 하고 마땅히 때릴 권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시한다. 또한 때리는 사람보다 맞고 사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1993-94년 구타 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상담한 여성의 50%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심지어 남편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경우까지도 있다. 피해정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아내구타가 ‘칼로 물베는 부부간의 사랑싸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이 구타할 때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혹은 가족문제, 자녀문제 등 온갖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시 그 원인을 아내에게 돌려 ‘폭력’의 형태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개인 여성으로서의 대처해 나갈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 인식과 제도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특별한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자는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성격이상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자들 중에 알코올중독자는 극히 일부분이며 아내구타의 50%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구타의 핑계거리일 뿐이다.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직장,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은 발생한다. 아이에게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에 의한 가정파괴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풍만한 사랑의 공간으로써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런 공간을 침범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가정 내의 질서 유지는 가정의 권위에 맡겨야 한다.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만이 결정하며 국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가족의 신성을 침해하는 반가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적, 법적 감시로부터 면제시킨 이유가 될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분리시켜온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사회구조의 반영물이다. 가정의 일은 결코 한 개인의 일일 수 없으며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정문제는 결국 사회문제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부부간의 폭력행사는 주로 남성의 성을 가진 남편이 여성의 성을 가진 아내를 때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아내구타의 문제는 성별문제를 내포한 가족구조의 모순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이며 부부관계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온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여성의 인격은 남성의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남편의 우월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그것을 보장

하는 행위들이 정당화된다. 그런 행위들은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사소한 언행에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폭력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아내(여성)에 대한 남편(남성)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남성의 폭력행사는 남성의 여성에 통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고 아내구타는 이러한 연속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남성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이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구타가정은 가정이라는 겉데기만 쓰고 있을 뿐이다. 아내를 인간이 아닌 학대의 대상으로 삼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공포에 찌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커녕 인간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고 있다. 근래에 와서 구타를 참다 못한 아내와 자녀가 결국 가장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구타가정이 얼마나 참혹한 가정파괴로 이어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구타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살인을 하게되어 자기파멸에 이르는 길밖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질타는 저지된다.

그러나 그때의 평화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횡포를 묵인하고 영속화시키는 것



흔히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질타는 저지된다. 그러나 그때의 평화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횡포를 묵인하고 영속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남성문화와 폭력문화/ 폭력의 대물림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남성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성성을 공격성이나 힘의 과시로 이해하며, 또 남성이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한다.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군대 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힘을 키우는 훈련과정을 가지며 그 힘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과시하도록 키워진다. 또한 남성우월주의는 여성 앞에서의 충동적 발산을 남성문화의 특징으로 믿게 만들기도 하고, 남성들은 말이나 순리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국회에서조차도 거침없이 힘을 사용한다. 남성문화에서 폭력을 일탈이나 범죄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폭력문화가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제와 인내가 최고의 미덕인양 키워져 온 여성은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남성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의 폭력문화가 가정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결국 '남자니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편견에 의해 가정폭력은 사회에서 방치되어 왔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될 때 폭력은 악순환된다. 따라서 구타가정의 자녀는 폭력을 대물림하여 또 다시 구타가정을 만들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구타 남편의 절반 이상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가정폭력은 남성문화의 폭력성과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임을 알 수 있지만 가정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사회 전반에 폭력문화를 만연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 개인의 인성 형성의 주요기반이 가족인 점, 구타행위가 자녀에 의해 학습·재생산된다는 점, 가족의 구성 내지 부부관계의 성격이 가정폭력을 촉발시킨다는 점 등 가족집단은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족집단은 사회구조와 사회 안 폭력문화의 반영물로서 존재하므로 가정문제는 곧 사회문제이다.

법적 규제의 미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가정폭력 중 아내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르는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은 커녕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여성전화 1993-94년 통계를 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건을 방치하는 경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처벌되고 있다.

아동폭력의 경우 아동폭력에 대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동법 제34조 3항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가정폭력방지법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있어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골자는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방향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 조치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발생한 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확대를 방지한다.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내지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가정보호처분

① 가정폭력에서 가정보호처분은 폭력의 재발

가정폭력 방지법

근본적인 방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며 구타당하는 여성이나 구타 가정을 떠난 여성을 문제여성으로 취급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과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 ② '가정보호처분 사건의 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더이상의 법률적 불이익이 없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둔다. 또한 관련 당사자와 경찰관의 비밀누설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둔다. 처벌조항의 종류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주거지침입금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아동학대의 경우 일시적인 친권상실인 임시친권 명령, 임시보호명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금전배상명령, 가해자에게 구타자치료 프로그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부모훈련프로그램, 부부역할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긴급전화와 상담소의 설치에 있다. 현재 24시간 신고전화를 받는 상담소가 없다. 당장 24시간 상담과 신고가 어려울 경우 경찰서 등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를 받고 그에 따른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아동들에 대한 학업문제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정보제공과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인식 전환의 중요성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살

펴보았다. 우선 사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어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었던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위한,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법적, 사회복지적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체계의 사용이 미국전역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지만, 아내구타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고 있다. 또한 가해자 치료를 위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폭력적인 남자가 방식을 바꾸리라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며 구타당하는 여성이나 구타 가정을 떠난 여성을 문제여성으로 취급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편이 아내를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고 아내구타를 사적이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범죄로 간주하고, 여성 역시 아내구타를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찰, 판사 역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내구타를 남의 가정일이 아니라 사회문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 법적이나 사회복지적 대책만으로 가정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



'전사'는 공대를 중심으로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한걸음씩 내디디려는 공대 여성모임으로, 사회에 만연한 여성문제들을 짚어내고, 공대를 중심으로 이화인들에게 이슈화시켜 나가면서, 그 대안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위입니다.

'전사'라는 이름이 다소 과격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행동력이 돋보이는 이름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사(Per-history)라는 단어는 행동력있는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말의 어감이 주는 의미와 역사 이전의, 지금보다 평등했을 시대를 그려보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우리는 어찌보면 계속적으로 '보호'만을 받

고 있는 듯 합니다. 실력양성을 위해 한 길로 뛰라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문여성을 양성한다는 이화에서, 우리는 사회에 깔려 있는 엄연한 성차별의 현

행동력 있는 여성들의 모임

전사(Pre-history)

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에는 더욱 둔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 나가는 작업들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자치공간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의지와 또한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을 변화시켜나가는 그 과정에 이화인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사는 만들어졌습니다. ■

나를 해방시키고 찾아가고 사랑해 가는 과정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은 존재의 심연을 불안스레 더듬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란 존재는 기이하게도 나 이외의 것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삶의 조건들에 대한 탐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기말, 포스트모던, 주체의 해체와 인간의 죽음, 이성중심주의에의 비판과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극심한 환경오염, 전지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동구권의 몰락, IMF와 대량실업, 기만적인 새 정부의 정책, 어디까지가 거품인지 알수 없는 문화와 성에 대한 담론들, 보수화의 물결..... 이런 익숙한 말들이 제대로 논의되기도 전에 진부하다는 듯이 잠잠해진 그저 온갖 혼돈과 불안이 난무하는 자리를



철학과
학술공동체 여성철학과
간사 미설

학술공동체

여성철학회

이제는 취업에 대한 위기감이 채우고 있는 듯하다. 전근대, 근대, 탈 근대의 어설픈 혼합 속에서 쫓아야 할 근대화의 이상이라고 믿었던 서구 모더니티의 종말을 보는 한국의 대학생

들에게 '성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배부른 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할까. 하지만 우리가 정신없이 떠밀려 가는 와중에도 권력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욕망과 사고, 미세한 일상 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지배의 틈을 넓혀 가고 있다.

소비 사회를 유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메우려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각양각색의 상품들의 소비에 미친 듯이 매달

린다.

이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서글프게도 사회에서 주체로 서보지 못한 여성들은 이런 담론들에서조차 기이하게 비틀어진 채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사회속에서 온전히 실현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욕망과 사고가 사회속에서 충만하게 인정받으며 통합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은 항상 자신의 삶의 '타자(the other)'로서 존재해 왔다. 인간(man)이 만들어 온 인간의 역사(history) 속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이성과 감성과 자아 실현의 잠재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아이(가문을 이어가는 아들)나는 도구, 가사 전달자, 남편의 내조자, 아들의 양육자, 남성의 성적 욕망의 도구.....로서만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지배하는 세계에서 마이너리티인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삶을 고민하

고 성찰하는 중요한 축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sex)이 만오천명이나 모여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이화'라는 공간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철학회'는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천천히 되짚어 보고,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하고자 한다. 즉, 여성 철학회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습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학술 공동체'로서 수동적으로 이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립한다는 점, 이론과 현실의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통해 학회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 지배 담론을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담론의 생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제도 교육이나 소모임, 정치 조직들과 구별점을 갖는다. 여성주의, 여성해방주의, 여권 신장..... 다양한 색갈로 번역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페미니즘'을 통해 다시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정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성이 타자화된 삶에서 벗어나 세계를 자신의 눈으로 재창조함을 의미한다. 행복, 불행, 자유, 고통, 해방, 이상..... 언어로 틀 지워진 존재의 비밀은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고통과 욕망의 흔적을 억누르지 않고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존재를, 그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을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망치는 것들과 싸워 나가는' 자신의 삶과 그것을 구성하는 세계를 완전히 재창조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여성주의 Web 문화 창출

이화여성학 소모임



이화여성학 소모임은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화여성

학 홈페이지 기획, 제작 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이화의 눈으로** 메뉴를 중심으로 관리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998년 봄부터 만나기 시작해, 현재 1기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인 동시에 실제의 '공간'을 이루고, 그 영역을 날로 확장해 나가는 월드와이드 웹, 여성 이화인의 공간이 홈페이지를 기점으로 인터넷상의 여성문화를 창출하려 한다.

이화여성학 홈페이지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이 이화인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여성문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활동하실 분이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 주세요.

e-mail: biosyjh@chollian.net

이 동화는 96학년 세네기들이 머리 맞대고 함께 만들어낸 동화입니다.

新 심 청 전

●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있던 심청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심청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글은 심청이 본지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심청은 본인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사진촬영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 같이 희생되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해요. 그 동안의 나의 인생은 억압에 짓눌린 삶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 심청이를 효의 상징으로 미화하며 진실을 왜곡하여왔고 또 왜곡하려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시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진실이 그들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왔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

니다. 아버님은 병인이신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까지 아버지는 저를 어렵게 키우셨지요. 전 어느 정도 자란 후엔 샴바느질과 남의 집 일을 돌보며 아버지를 돌보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경제적 능력이 없으셨지만 전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위에 저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웃에 '여원'이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동네에선 그 분을 '행덕어멈'이라고 부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담배를 무시고 매우 근심스런 표정

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더군요. 전 아버지께 무슨 근심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다리에서 아버지를 구해주신 스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그 스님께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참으로 당황스럽더군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려야 하겠지만, 저희 집 사정이야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박찬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순간적인 욕심에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식사도 도통 안 하시면서 계속 공양미를 마련할 근심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 역시 답답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하루도 살기 힘든 마당에 300석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이웃의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여원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서 중국으로 가는 상행 배에 처녀를 팔면 300석 이상을 받을 순 있지만, 딸을 팔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말씀은 못하고 계셨지만 제가 먼저 그 말

을 꺼내주기를 온근히 바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혹 독자 중에 제 자신의 희생에 대해 너무나 수동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었냐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의 행동은 아버지의 암묵적인 강요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저를 데리러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부탁한다며 속바지에서 엽전 몇 개를 한 상인에게 주시더군요. 전 그 돈이 저를 가는 동안만이라도 잘 부탁한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본 뜻은 안 것은 이미 배에 오른 이후였지요. 절 보내며 미안하다고,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널 이렇게 보낸다고 울던 아버지가

상인들에게 돈을 준 건 나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공양미를 빨리 절에 갖다주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그 일종의 배신감이랄까요, 하여튼 정말 여자로 태어난 제 자신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배가 인당수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거센 파도가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녀영혼들이 배를 에워싸고 배를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



어보니 전 이제까지 인당수에 빠졌던 처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끄는 여신 중에서 저의 어머니도 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곳은 바다 속의 무릉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유토피아라고나 할까요. 전 그 처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처녀를 바침으로써 효과를 얻는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녀를 떠나 물질로 사람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관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님과 만남도 잠시 접어둔채, 전 이곳의 소녀들을 대표하는 소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시 육지로 연꽃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떠오른 연꽃을 본 어부들이 기이하게 여겨 연꽃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얼마후 연꽃에서 나온 절 본 왕이 저를 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전 왕에게 처녀공양의 문제점과 실태를 왕에게 말했지요. 그러나 왕은 저의 말을 알았다고만 할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왕은 저에게 자신의 부인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고 말하며 저에게 왕비가 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남에게 의존하여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왕의 청혼을 거절한 저는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하였던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궁에 갇혀있으니 그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혈육이라 날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문득 문득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심경을 눈치챈 왕은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국의 봉사에겐 잔치를 베푼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다가 도망을 갈까봐 왕은 그 대신 아버지를 궁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었지요.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아버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여인의 아버지가 봉사로 하니 아버지는 혹시나 하고 달려오신 거였죠. 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목소리를 듣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는 저에게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씩씩한 기색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지막 정마저도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고향

에서 힘들게 살고있는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왕비가 되어야지 감히 전방지게 왕의 청을 거절한다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저 자신을 희생했던 못난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딸이라면 가족의 편안을 위해 자신 한 몸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날 이후 매일

밤마다 전 어머니께 기도를

올렸어요. 어머니께선 꿈

속에서 나타나셔서 저

에게 다시 바다속 공

동체로 돌아올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저

도 어머니 생각에

동의하였지만, 일단

궁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궁에 여원 아주머

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은 제

아버지의 파렴치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동네 여인들과 함께 단결하여 하실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후 저의 이야기는 전국방방곡곡에 퍼져 모든 여인들의 분노를 샀고, 민심을 잃을까 두려운 왕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보니 집에 아버지 홀로 계시더군요. 아버지는 공양미 300석을 바친 덕택에 부처님의 은

공으로 눈은 뜨게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왕비가 되어 늙은 아비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가 떠난 후 아버지를 돌보아 주시던 여원 아주머니도 떠나고 아니게 되었습니다. 동네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여

인들이 바다에서 나와 여원아주머

니와 함께 바다 속으로 돌

어갔다고 했습니다. 바

로 저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었죠.

아무리 자식된 도

리로 아버지를 모셔

야 한다고들 하지만,

저를 팔아먹고 부귀

영화를 무시하였다고

꺾박하는 아버지를 제가

더 이상 모셔야할 이유가 있

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후 전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성들이 살기에는 낙원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더 이상 처녀를 바치는 풍습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차별과 성폭력 등의 이유로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성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 안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입니다.

여성인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화 안의 작은 물줄기를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져나가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 구석구석 자리잡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경험은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론과 지식의 담론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의 중얼거림이, 작은 몸짓이 더욱 중요한 힘의 원천이며 '여성운동'의 시작입니다.

기나긴 '운동'의 역사속에서 배제되었던, 사적인 무얼거림으로만 치부되었던 그래서 중요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는 보다 힘차게 내질러 보려고 합니다.

거대한 대의명분 속에 그리고 그 커다란 모순의 물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시시때때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스러운 일상에 대한 작은 반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운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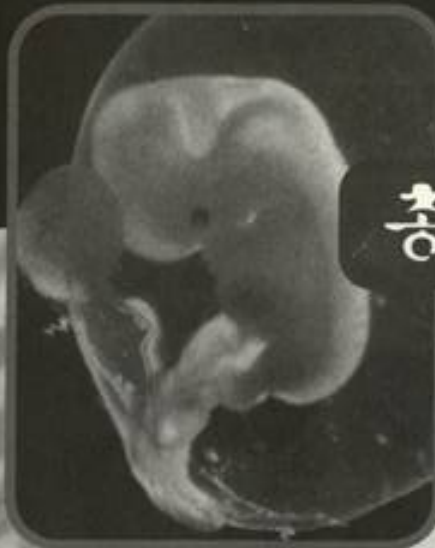
이화여성위원회는 보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성인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학생관 218호 <여성위원회> 방으로 오세요,
Tel. 360-3548



총회 기획

총회 기획



우리는 길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몸을 본다. 신문, 잡지의 광고에서부터 도색잡지의 누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넘쳐나고 있는 여성들의 몸. 그러나 여성인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몸과 그 이미지는 여성인 우리가 아닌 남성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된다. 그리하여 그 넘쳐나는 몸들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 통제되고 조종된 어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을 막고 조이고 기쁨칠하도록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전쟁터이다!

-Your Body is Battleground!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존재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는 가장 일차적이고 또한 가장 격렬한 통제의 대상이다.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으로서, 남성들을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존재로서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수단화되고, 대상화되어 왔다.

아이를 낳아야 할 몸이니 조심해야지...

-출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 몸에 대한 통제

'파적'이라는 영화창작집단이 이대앞에서 '담배시위'라는 것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마스크는 얼마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벌인 작은 퍼포먼스를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고 여성들의 흡연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TV의 토론 프로와 각 통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여성흡연을 '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반대하던 많은 이들은 여성이 흡연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알 수가 없다. 너무나 중요한 남자의 '씨'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성을 써야만 하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남성중심적인 세상의 논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씨를 가진 남자가 건강을 해치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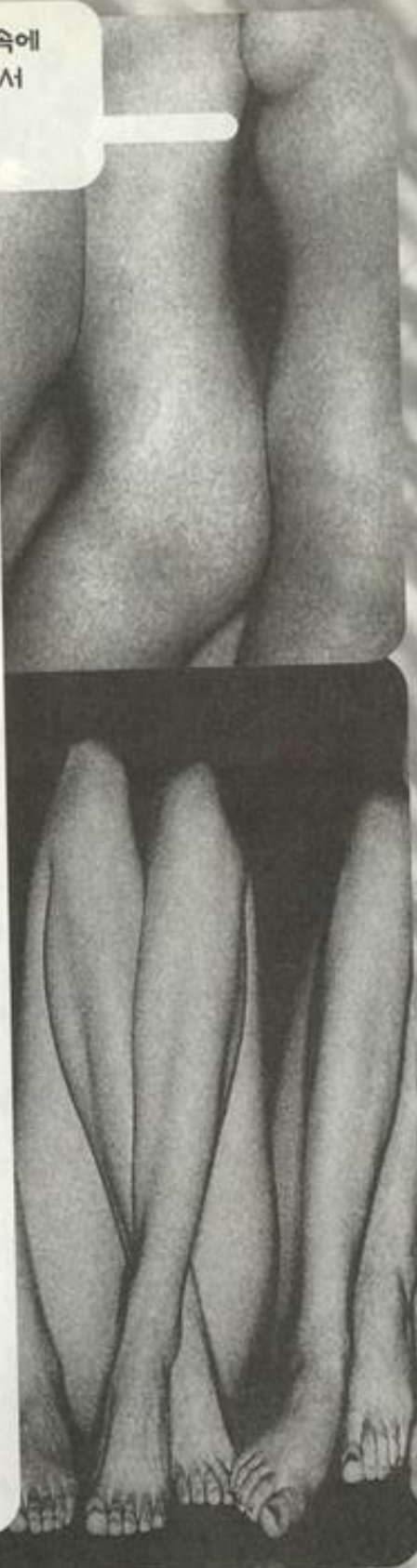
마치 너무나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 말들 속에 '여성은 없다'. 오직 사회가 원하는 아이를 최적의 조건에서 출생시키도록 여성의 몸에서 인격을 빼어 버린 '건강한 자궁'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되는 일'인데, '발'에 지나지 않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일에 어쩌서 매스컴이 뒤집힐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일까?

마치 너무나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 말들 속에 '여성은 없다'. 오직 사회가 원하는 아이를 최적의 조건에서 출생시키도록 여성의 몸에서 인격을 빼어 버린 '건강한 자궁'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생물학적 재생산-생식을 위하여 남성들은 여성들의 몸을 소유하였으며 여성들의 느낌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모든' 여성은 언제나 출산의 과정에 대비하여 자신의 몸을 다듬고 있어야 하며,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여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앞으로 태어날(언제 태어날 지 모르고, 태어날 수 있을 지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은 여성답지 않은 여성,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낙인찍히게 되며 그녀가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까지 사회는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한다. (우리는 TV드라마와 기타 다른 매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장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출산이라는 문제에서 여성은 출산을 수행하는 '자궁'이라는 수단의 관점에서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임신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소외되는 경험들을 해야만 한다.

임신의 과정에 있어서 남성중심적 사회는 여성들이 가지는 느낌들을 획일화시켜 버리고 오직 만족한 여인, 어머니가 된다는 환희에 찬 여인, 뱃속의 아이의 교육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태교를 하는 여인 등의 모습을 허용한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 '어머니의 느낌'들과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여성들은 주어진 틀에 자신의 감정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여성의 몸을 소외시키고 남성과 그 남성의 소유물이 될 아이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낙태에



총회 기획

관한 담론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페미니스트의 논의를 제외하고) 소중한 생명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어쩔 수 없는 경우(이른바 강간에 의한 임신)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임신의 주체인 산모, 즉 여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치 않고 있다.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

는 일이고, 낙태를 할 경우 손상을 입는 것도 여성의 몸이다. 낙태를 하는 것이 생명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반대하지만 여성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때문에 낙태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여성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그 여성의 신체에 대한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여성을 제외하고 태어날 '아이'로만 집중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율권은 무시되고 있다.

33-23-34, 틀에 안 맞으면 잘라버려!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 몸에 대한 통제

남성들은 여성들을 '나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와 '내가 데리고 놀 여자'로 구분해 놓고 그에 따라 '성모 마리아'와 '창녀 마리아'의 이중규범을 강요한다. 여성은 정숙한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가지기를 요구되며 동시에 남성들을 성적으로 즐겁게 해 줄 창녀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때문에 여성들은 훌륭한 어머니, 정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통제당함과 동시에 남성들의 구미에 맞는 성적 대상이 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몸을 통제해야만 한다'.

아침마다 브래지어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 무덤덤한 느낌으로 지나치고 있겠지만, 사춘기 시절 처음으로 브래지어를 했을 때의 답답함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브래지어를 하는가? 처음 브래지어를 사다주 시면서 엄마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가슴이 처지지 않고 예쁘게 자라야지..'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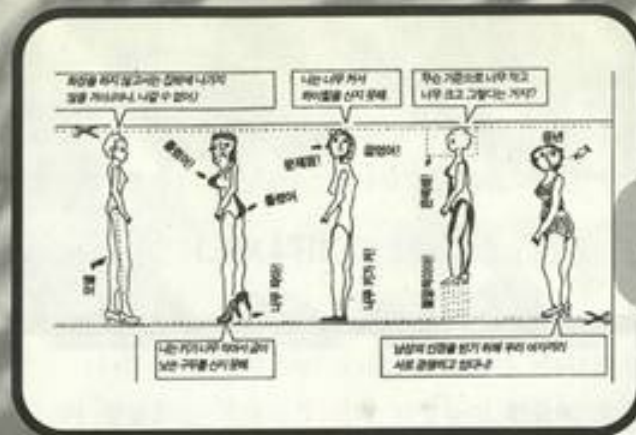
우리가 입는 속옷들은 남성들의 그것과 달리 단순히 청결의 기능을 위해 고려된 것들만은 아니다. 가슴을 아름답게 하고 처진 hips를 위로 올리고, 날씬한 아랫배와 허리를 위해 여성들은 때

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기까지한 보정용 속옷을 입는다. 남성들도 요즘 코르셋을 입는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다. ('남성들이 코르셋을 입는다'라 것이 기사거리가 되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남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정하기 위해 소위 파운데이션류라고 불리는 보정용 속옷을 입는 것과 여성들이 그러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서로 상반된 이중의 역할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속옷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여성의 가슴, 튀어나온 유두는 성적코드로 읽힌다.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은 어머니이거나(수유하는 여성) 할머니이다. 그 두 부류는 성적 대상의 영역으로부터 상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때문에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정숙한' 여성이 아니다. 동시에 처지지 않고 아름다운 가슴은 남성의 구미에 맞는 성적대상으로서의 조건이다. 유두를 가려 '정숙한' 몸가짐을 가지고, 동시에 가슴이 아름다운 성적 대상이 되기 위해 우리는 브래지어를 한다. 여성들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성적 대상으로서 기능하도록 역할이 규정지어져 있다. 얼마나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르고 살림을 잘하는가와 더불어 한 여성의 성적매력은 때론 그녀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남성적 시선에 맞추어 눈물겨울 정도의 다이어트와 보정용 속옷과 하이힐과 화장품과의 전쟁을 치뤄야만 한다.

또한 브래지어는 우리가 여성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이미 관습화된 하나의 의례로 존재한다. 가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성적 대상으로서 기능하는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의례로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절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브래지어를 했을 때의 그 미칠듯한 답답함을 서서히 잊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하게 되면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으로 통제하는 기제는 더욱 교묘해진다. 구체적인 명령어로서 여성들이여



이렇게 저렇게 입고, 이런저런 몸매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기준으로 늘

씬하게 뽐아진 미녀와 그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을 보여줌을 통해 여성들에게 그렇게 자기자신을 만들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생. 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되는 미인대회일 것이다. 여성의 몸에서 인격을 지우고 부위별로 나누어 채점을 하여 점수를 매기는 행위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공식화된 체계로 만들고 동시에 여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미인들 같은 몸을 만드는 것이야' 라고, 여성의 몸은 (남성의 필요에 따라) 부위별로 재단되어 평가되거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되어야)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 안에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사회적(남성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몸을 다듬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자본주의적 사회 안에서 그와 관련된 산업(화장품, 다이어트 산업...)의 생성과 확장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거대해져만 가는 산업들은 역으로 상품판매를 위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가꾸어야 한다는 의식을 강조한다. 그 안에서 가부장적 가치들을 더욱더 공고히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에게로!

우리의 몸은 전쟁터다. 우리의 몸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이들과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육체를 혐오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생리하는 몸, 임신하는 몸에 대한 (남성의 시선에 의해 폄하된)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거나 광고에서 나오는 예쁜 몸에 비해 너무나 뚱뚱하거나 혹은 가슴이 빈약하거나, 다리가 짧은 보기 흉한 몸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는 점점 더 조이는 사슬이 될지라도. 물론 여성을 수단화하고, 대상화시키고 오로지 그 역할만이 여성의 것으로 주어져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것이 일상에서 부딪힐 때 수많은 여성들은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 분열적 상황에서 괴로워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사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음모의 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이 참된 '해방'을 선택해야 한다. ■



기획 하나

우리의 몸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1. 처녀 '막'?

처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가? 고막, 횡경막 등등 '막'이라는 것은 막 봉해져 있는 닫혀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막이라는 것을 나의 질 입구를 막 막고 있는 어떠한 '문'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처녀막은 '막'이 아니다. 그것은 질입구에 있는 근육조직의 이름이며, 특별히 '막'의 형태를 지닌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형태도 다르다. 또한 사람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운동 등으로 저절로 파열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굳이 그러한 근육조직에 '처녀' '막'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일까?

어떠한 대상을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드러내준다. '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막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무엇에 의해 '뚫리는 것'이다. 여성의 질입구에 있는 근육을 '막'이라 명명하는 것은 여성의 질이 어떤 것에 대해 '막혀있어야 하며' 동시에 어떤 것에 의해 '뚫리는 것'으로 사고됨을 의미한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한 남성에게 소유될 때까지 성적인 접촉을 해선 안되며, 여성의 성은 합법적으로 그녀를 소유한 한 남성에게 의해 정복당하는(뚫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있지도 않은 '막'에 대한 신화를 강요하고, 여성들은 그 신화 속에서 혹시나 파열될지도 모르는 처녀막에 대한 강박관념과 이미 파열된 처녀막에 대한 죄의식을 떨치지 못한다.

처녀막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가 더 있다. 처녀막은 삼입성교에 의해 '파열되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첫 관계에서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면 충분히 파열의 고통은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성기에 집중되고 공격적인 남성의 행동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관

우리의 몸

현명한 남자가 우매한 정자들을 위해 구원의 '호르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착실하게 그 길을 따라온 정자와 수정이 되는 것이다.

계에서 여성이 얻는 것은 근육과열의 고통일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처녀막은 '막'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성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일 뿐이다. 왜 도대체 '처녀'란 말이 생겨나고 있지도 않은 '막'에 대한 믿음들이 떠도는 것인지. 누가 그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의해 고통 받는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장 빠르고 강한 정자가 '인간'이 되는가

영화 '마이키 이야기'의 첫장면을 기억하는가. 남성과 여성의 애매한 정사신 다음에 이어지는 화면을 가득히 채우는 정자들은 난자를 향해 일제히 돌진하기 시작한다. 길을 잃고 헤매는 정자들은 도태되고 잔인하고 교활한 경쟁의 과정을 뚫고 가장 출렁거리며 빠르게 난자에 도착한 정자. 난자는 코맹맹한 소리로 연신 '안돼. 싫어!'라고 외치고 정자는 흡사 강간장면을 연상시키며(그것이 강함의 상징이라도 되듯이) 난자 속을 뚫고 들어가며 괴성을 지른다. 그리고 '인간'의 탄생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말 '정자'들은 자발적·적극적으로 '아이의 탄생'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것일까. 사실 수정의 과정은 아무 생각없이 질로 들어간 정자들을 유인하고 강제하는 난자 고유의 호르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자들의 '정자'는 자연히 익숙하지 않은 여성의 몸속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그때 현명한 남자가 우매한 정자들을 위해 구원의 '호르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착실하게 그 길을 따라온 정자와 수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껏 강하고 생동적이며 적극적인 '정



우리의 몸

자'와 정적이고 무기력하며 양탈을 부리며 괴로워하는 '난자'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념에 기반한 방식으로 읽

혀지고 보편화되어진다. 즉 사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아무것도 혼자 해낼 수 없는, 남성이 없이는 무기력한, 제자리걸음만 하는 소심한' 모습만이 존재해야 할 뿐이고 그것이 '난자'의 모습이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3. 오르가즘에는 꼭 남성의 성기가 필요한가.

여성의 성행동에 대해 조사, 분석한 하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삽입 성교보다는 클리토리스(음핵) 자극을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클리토리스 자극에 있어서도 파트너에 의한 자극보다는 마스터베이션에 의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이 하는 마스터베이션과 비교하여, 남으로부터 받는 클리토리스에 대한 자극으로는 흔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그러한 경우의 클리토리스의 자극이 대개 오르가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섹스에서 흔히 그것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흥분을 흥분시키기 위한 '전희' 가운데에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클리토리스 자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통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문화에 있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관계의 패턴은 여성을 희생물로 만들며 압제를 가하고 있다. '전희 삽입 성교' (왕복운동)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위의 클라이막스이자 종말로서 남성의 오르가즘, 이러한 방식으로서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할 기회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일련의 패턴은 언제나 남성의 조정 아래 놓여 있으며, 여성을 괴롭혀왔다. 다시 말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 외의 여성의 감정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구와 주기, 패턴은 남성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늘 금기시되어왔고 오직 남성의 오르가즘을 위한 표준화된 타이밍이나 장소만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우리의 몸

4. 여자는 생리할 때 도벽이 생긴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 전에 두통이나 여드름 짓가슴이나 특정 신체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긴장, 적개심을 갖고 행동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최근에 이것은 '월경전기 증후군' (DMS)라는 이름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범주인 DSM IV의 한 범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월경 증후군을 겪는 여성들의 비율이 20~95%정도로 다양하게 나오고 증상조차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사크터의 정서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신체적인 조건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우울이나 적개심이 될 수도 있고 기분 좋음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월경을 폄하하는 사회적인 태도는 월경을 하는 여성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이지는 월경양이 많은 여성들이 월경전기와 월경기에 불안이 더 많음을 발견했고 이는 호르몬 구성이나 생화학적 상태 때문이 아니라 출혈이 외부로 나타날 것에 대한 염려와 과다출혈로 인한 불편을 반영한 것임을 지적했다. 월경 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자극과 상호작용하여 때로는 기분나쁜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월경 전 경험들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신체에 대한 폄하적인 시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흔히 여성의 심리적인 반응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생리하냐?' 식의 비아냥거리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여성의 신체변화에 대한 왜곡되고 일률적인 잣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





경고 :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남성들의 정자수를 감소시
켜 건강한 정자 생산을 해치므로 남
성들과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집 후기

엑스사단 밥 맛있다. 사과도.(행복해~)

난 바보였다. 바보인가. 바보일 것이다.

그래도 이번엔 밥 안샀다.

한결갈지 못한 내가 원망스럽다. 미안해.

그래도 재밌었다.

설마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심의 걸려 빛
을 못보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알아줄까?

이 책이 여성위원의 사람들의 기를 온통 빼앗아먹으
며 탄생한 무시무시한 책이라는 것을!

오늘도 꿈꾼다. <3차성징> 매진! 재인쇄 돌입!

.....우린 너무 가난해.....

98년 9월에

☆, Eye, Leva





함께 하는 우리

꺼리(선미, 제약96)	사과(연수, 전자공96)
글라(미웅, 법학96)	쌀(경창, 의직95)
데스(수림, 상경98)	소다(정원, 사과98)
도올(재은, 간호98)	아이(보미, 사회97)
떠기(부연, 공예98)	에로(원영, 사회96)
라기(은아, 신방96)	X(은정, 소인95)
레바(선영, 법학97)	엠(성임, 통계96)
마니(지윤, 사과98)	천둥(지은, 가과98)
번개(인숙, 정외97)	큰님(정민, 교육95)
별나(현실, 교공96)	큐라(지연, 국문96)
뽀사(유경, 정경98)	포니(지인, 가과98)
뿔(희정, 의직95)	

함께 해 준 사람들

노을(영희, 사회97)	이지(선미, 제약96)
당근(미설, 철학96)	이티(경희, 사회97)
라니(정란, 법학95)	체크(소영, 국문97)
우주(은주, 행정95)	카람(일억, 전자공96)
원더(선영, 통계96)	하람(지윤, 컴공95)

늘 곁에 있는 사람들

은초, 짜투리, 여울엄마, 모기